

21세기 조선통신사, 규슈에 가다

사랑방의
전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2 1 세 기 조 선 통 신 사, 규 슈 에 가 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전자자료]: 21세기 조선
통신사, 규슈에 가다 / 편저자: 하영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전자책 책

권말부록 수록

ISBN 979-11-86226-73-5 05300: 비매품

여행기[旅行記]

답사기[踏査記]

규슈[九州]

981.3402-KDC6

915.2204-DDC23

CIP2016000780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21세기 조선통신사, 규슈에 가다

편저자 | 하영선

발행자 | 하영선

발행처 | (재)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월 15일

편 집 | 최수이

디자인 | 신영환, 박현성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 화 | 02-2277-1683 (대표)

팩 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cai.or.kr

등 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9-11-86226-73-5 05300

비매품

목차

머리말		004
답사일정표		006
답사의 문을 열다 _사세보 미 해군기지	❶ 최인호	009
일본의 해외창구 데지마의 변성	❷ 김유란	013
글로버의 날개짓이 일본과 동북아의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일으키다 _구라바엔(Glover Garden, グラバー園)	❸ 김주연	035
도시의 비밀과 꿈을 간직한 곳 _원폭자료관	❹ 하보람	061
역사 속의 한일관계와 앞으로의 방향 _한일교류박물관	❺ 김덕환	077
청일전쟁과 일본의 제국주의, 시모노세키에서 그 시작을 알리다 _일청강화기념관 I	❻ 이주원	097
중국 천하질서의 마지막을 가다 _일청강화기념관 II	❼ 구민선	119
1930년대 동아신질서와 일본의 기회 _규슈국립박물관	❽ 강현민	139
동아시아 사랑방을 찾아서 _21세기 통신사와 아베 일본의 만남	❾ 최인호	151
부록		169

머리말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 3기 젊은이들은 한 학기 동안의 “세계정치 바로보기”라는 지적 유격 훈련을 끝내고 일본 규슈 지방 학술 답사에 나섰다. 단순히 규슈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규슈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천하질서 속의 전통적 한일관계는 어떻게 엮어졌던가를 되돌아보고, 천하질서의 변방이었던 일본이 17세기 서양의 네덜란드와 어떻게 만났으며 19세기 유럽 근대국제질서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19세기말 청일전쟁의 승리로 어떻게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서게 됐는가를 찾았다. 그리고 20세기 상반기 일본제국주의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로 겪어야 했던 원폭의 비극적 현실을 보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 현장을 찾았고 마지막으로 21세기 일본과 아시아를 고민했다.

이런 답사 목적을 위해서 사랑방 젊은이들은 한일관계사가 잘 정리되어 있는 한일교류박물관, 임진왜란이래 한인 도공들의 숨과 얼을 느끼게 하는 아리타 도자기 마을, 네덜란드인들의 거류지로 만들어졌던 인공섬 데지마(出島), ‘팍스 브리타니카’의 상징적 표현인 ‘글로버 파크(Glover Park),’ 중국 천하질서를 마무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서막을 여

는 시모노세키의 일청강화기념관, 잘못된 근대적 만남을 아프게 보여주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주일 미 해군의 사세보 기지를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강행군했다. 한 학기 동안 준비했던 답사 보고서를 현장에서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들을 벌였다. 토론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고 결국 숙소로 돌아와 밤늦도록 계속됐다. 이야기는 개인, 국가, 동아시아, 지구를 넘나들면서 퍼져나갔다. 짧은 답사 기간이었지만 한 학기 동안 강의에서 미진했던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눴다. 언젠가는 이러한 작은 씨 뿌림의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번 답사도 동아시아연구원 여성 후원모임인 W1^o의 아름다운 재정 후원에 크게 힘입었다. 감사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강의와 답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던 김덕환군이 함께 답사 보고서 출간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김 군은 답사 보고서와 함께 늘 우리 사랑방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2015년 10월 5일

만청 하영선(晩靑 河英善)

답사 일정표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09:20	도착
12:10 - 12:50	점심식사
13:00 - 15:30	사세보 미 해군기지 / 최인호★
16:10 - 17:00	아리타 도자기 마을
19:00 -	저녁식사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09:30 - 10:30	데지마 / 김유란★
11:00 - 12:30	점심식사
13:00 - 14:30	글로버 가든 / 김주연★
15:00 - 16:00	원폭자료관 / 하보람★
17:30-	저녁식사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 09:40 - 10:10 한일교류박물관 / 김덕환★
- 12:50 - 14:30 일청강화기념관 및 가라토 어시장 / 이주원·구민선★
- 16:00 - 17:00 규슈국립박물관 / 강현민★
- 17:30 - 20:00 저녁식사
- 21:05 귀국



EAI사랑방

2013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답사의 문을 열다 _사세보 미 해군기지

최인호

서울대학교

우리 답사팀은 일정의 첫 출발을 사세보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미군 부대와 함선 승선은 처음이었고, 2박 3일 간의 첫 걸음을 잘 내디뎌야 한다는 긴장감에 약간의 흥분과 함께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해군기지인 만큼 우리들의 주 관심사는 사세보를 통해서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로 향했습니다. 과연 미국의 새로운 질서 수립 전략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주일미군 그리고 동아시아 관계국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답사는 안내를 맡은 미군과 동행하면서 주요 시설들을 살펴본 뒤에, 기지 사령관인 로크 대령의 기지 소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세보 기지 내 함대

동아시아의 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며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안보, 특히 해양안보 분야에서 각 국가들이 기존에 위태롭게나마 간신히 유지해오던 해양전략 방침을 바꾸면서 이 지역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 간의 오래된 영토분쟁이 상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무역의 해산물동량 50퍼센트가 이곳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첨예한 영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동아시아의 해양은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에 있어 더욱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와중에도 미국의 군사훈련에 중국이 참여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해상협력과 소통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관련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해상안보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답사 팀의 사세보 방문 또한 사실 이러한 해상안보협력의 초보적인 노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세보 미 해군의 공공관계부서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답사의 마지막에 우리 답사팀에게 브리핑을 해주었던 기지 사령관인 로크 대령과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해 한국이 그리고 미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짧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신·구 세대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금의 해상안보 도전은 큰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우리는 답사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일본의 해외 창구 데지마의 번성

김유란

런던정치경제대학

들어가며

첫 답사지인 데지마로 걸어 들어가며 신시가지와 데지마를 구분 짓고 있는 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항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으로 지어진 데지마 주변의 땅을 매립하며 생긴 선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무나 함부로 건널 수 없었던 이 금지선을 오른쪽, 왼쪽, 마음껏 넘나들며 걸으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데지마 안에 살던 네덜란드인들을 제외한 어떤 외국인도 일본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쇄국기간 동안 조선통신사들조차 들어가보지 못했을 데지마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데지마를 더욱 매력적이고 알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발제의 긴장 때문인지 금기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데지마 입구까지 그 경계선을 따라 걷던 짧은 시간이 제게는 답사기간 동안 가장 흥분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과 교역을 허락 받은 네덜란드인들에게 데지마에서

의 삶은 특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한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데지마에서 그들은 몇 년씩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먹으며 지냈을까요? 다행히 예전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있는 데지마 안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경험해보고 또 그 작은 섬에서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란타’ 제국과 데지마

_아란타의 국제적 위상과 일본 국제정치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 문물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근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서양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또 끝맺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서양의 교류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의 교류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서양의 첫 만남은 1543년 포르투갈인이 규슈 남단에 표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화 시기에 일본과 가장 오랜 기간 독점적 교역활동을 한 나라, 그리고 메이지 유신 직전 교역국으로서 일본에 서양 문물을 가장 활발히 전파한 나라는 아란타(阿蘭陀)로 불리던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면 풍차와 튜립이 아름다운 유럽의 작은 나라,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한때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장악한 수퍼파워였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주도로 열린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는 해상권이 곧 국력이었습니다. 1581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지배하던 유럽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17세기 전성기를 맞이하며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향권 아래 있던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을 제외한 새로운 무역로를 탐방하기 위해 1602년 최초의 주식회사 형식을 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동남아, 뉴암스테르담을 거점으로 북미, 그리고 일본을 거점으로 동아시아로 진출합니다. 무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기독교 포교를 강조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철저히 이윤 중심의 무역에 집중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위해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무역 독점권을 보장하고 그 외에도 현지에서의 조약 협상 및 체결권, 군사 지휘권, 재판권, 화폐 주조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67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약 5만 명의 직원과 3만 명의 병력을 고용하고 200척 이상의 배를 소유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 매년 40퍼센트에 이르는 수익을 안겨주는 세계 최대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작가 미상 1998).

이러한 성공을 토대로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는 물론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서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주 교역국을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로 바꾼 시점이 네덜란드의 부상과 시기적으로 들어맞는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서양의 교류에서 큰 맥을 짚어보면 일본은 서양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맞추어 주 교역국을 바꾸어가며 강대국의 부상에 편승하고 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 시기마다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능숙한 국제정치를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서양의 최초 만남은 우연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의 교류는 일본이 치밀하게 짠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고 국제정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은 편승과 변용의 전략을 능란하게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엄밀한 계획과 규제 하에 이루어진 서양과의 교류 흔적들은 지금의 일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란타로 불리던 네덜란드의 번성과 쇠퇴에 따라 일본과 네덜란드의 교류와 그 꽃인 난학(蘭學)이 어떤 지평을 맞이하였는지 살펴보고, 또 난학이 지금의 일본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데지마에서 네덜란드의 데지마로

데지마는 일본이 쇄국정책을 폈던 시기에 바깥 세계와 통하는 유일한 숨구멍의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데지마는 네덜란드의 무역 상관이 위치한 곳으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학문을 공부하는 난학(蘭學)의 양성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데지마는 일본의 첫 서양 교역국이었던 포르투갈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인이 규슈 남단의 다네가섬(種子島)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그가 지닌 조총의 위력에 크게 관심을 보인 일본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이어가며 서양 문물도 함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어로 쓰인 서양 문물을 공부하는 남만학(南蠻學)이 발전하게 되는데 비단, 양모, 상아, 산호, 설탕 등의 무역품 외에 서양의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이 일본에 전해지며 일본 합리주의의 기틀을 닦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의 교류는 기독교의 포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럽 강대국들은 새로운 영토를 장악하고 그곳으로부터 향신료를 공급받는 동시에 그곳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해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는 항해의 목적을 ‘기독교와 향료’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포교의 목적이 짙은 포르투갈과의 교역은 일본에 최초의 기독교 전파로 이어져 1580년 포르투갈에 나가사키를 내어준 규슈의 다이묘 오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와 다수 지역인들의 기독교 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의 활발한 포교 활동으로 일본은 한때 유럽 밖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인구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의 증가로 기독교 윤리에 따라 신(神) 아래 평등을 제창하는 이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하자 정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87년

최초로 기독교 금교령을 내립니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주어졌던 나가사키도 직속령으로 복속시킵니다.

히데요시에 이어 에도막부(江戸幕府)를 세우며 일본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더욱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이 시기에 일본 사회에 대한 포르투갈인의 종교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나가사키 상인들의 투자를 받아 데지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데지마는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띠었습니다. 4,000평이 조금 덜 되는 인공섬인 데지마는 나가사키 앞 바다를 매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육지와 통하는 통로는 작은 다리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구의 지시와 어떤 기술력으로 데지마를 설계하고 건설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데지마 건설과 관련한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 데지마의 복원 작업 또한 매우 신중한 연구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네덜란드 상관장이었던 니콜라스 코케바겔(Nikolaes Coeckebacker)의 1635년 일기에 “일본인들이 돌로 바다를 메우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정하미 2005, 46).

현재는 데지마 주변의 땅이 모두 메워져 더 이상 섬의 모습을 한 데지마를 볼 수 없지만 당시 데지마의 모습을 묘사해놓은 그림을 통해 부채꼴 모양의 섬 형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지마가 일본 본토와 연결되는 지점은 작은 교각 하나뿐이었고 이 다리는 철저히 통제되어 일본과 데지마 내 외국인들의 교류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 17세기 데지마 모습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 반경을 데지마로 국한하여 격리시킨 후에도 일본 내 기독교 세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1637년 규슈에서 농민봉기까지 일어나자 에도막부는 더욱 강력한 기독교 탄압, 선교사 추방,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무역 단절로 쇄국을 강화하게 됩니다. 1639년 막부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시키고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하면서 포르투갈의 데지마는 빈 섬이 되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서양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일본은 이미 무역을 통한 이익과 서양의 선진 문물에 눈을 뜬 후였습니다. 포르투갈을 통해 들어오던 직물과 설탕에 대한 수요가 일본 내에서 높았고 포르투갈과의 교역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층도



▲ 데지마에서 사용했던 대형 저울

생겨났습니다. 데지마를 통해 일본으로 수입된 대표적인 무역품은 설탕이었습니다. 데지마 곳곳에서 설탕 포대를 썰 때 사용하던 대형 저울을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의 수입과 함께 서양의 제빵 기술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식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나가사키의 명물인 카스텔라도 데지마를 통해 들어온 설탕과 서양 제빵 기술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 나가사키 명물 카스텔라

국제화에 발을 내디딘 이상 그 물살을 거스를 수 없었던 막부의 묘책은 무역과 포교활동을 철저히 분리하여 신임을 얻은 네덜란드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단절한 시점은 내부적으로 네덜란드로 포르투갈을 대체하기 위한 협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에도 막부의 고위 관료는 니콜라스 쿠케바켈(Nikolaes Coeckebacker)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인과 일본인 사이의 통교교역을 단절하고 포르투갈인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면 네덜란드인은 직물 및 일본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가? (정하미 2005, 49)

네덜란드로부터 물자 공급을 보증 받은 일본은 포르투갈인을 모두 추방하고 히라도(平戸)에 무역 상관을 세우고 무역 활동을 하던 네덜란드인들을 데지마로 옮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데지마는 네덜란드의 무역 거점이 되고, 일본 쇄국 약 200여 년간 일본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무역과 정보 교류의 장이 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일본 간부들을 데지마로 초대해 만찬을 베풀었는데 이 때 많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인들은 데지마에서 처음 소고기 요리와 와인을 접했다고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인들의 춤과 노래도 데지마에서만 접할 수 있는 진귀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만찬에 초대된 일본 간부들은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난학의 역사적 발달_ 초기 난학의 주역들, 데지마 통역관

일본은 교류 대상국의 영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서양문물을 수용하여서 시기마다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남만학이 발달하였다면, 포르투갈과의 교역 단절 그리고 데지마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교류로 난학이 형성되게 됩니다. 약 1만 3천 평방미터의 작은 섬 데지마는 난학의 무대였고 난학은 데지마와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네덜란드는 프로테스탄트 국가로서 가톨릭 국가였던 포르투갈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무역과 포교활동의 분리를 통해 일본의 신임을 얻고 에도 시기에 유일한 서양 교역국으로서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덜란드도 일본의 통제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역은 허용하되 문화적 접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에도막부는 네덜란드 상인들의 활동 반경을 데지마로 제한하고 일본인과 일상적인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데지마를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는 양쪽에서 감시되었고 혹시 모를 성경책, 찬송가 등 종교 관련 서적과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기 위해 네덜란드 상선이 도착하면 이틀에 걸쳐 철저히 검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네덜란드 상인들을 오로지 교역품의 전달자로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쇄국정책을 끝낸 이후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친교를 위해 세워진 나가사키 클럽. 이곳에서는 ‘국립 감옥’이라고 불리던 데지마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네덜란드인들이 들여온 네덜란드식 당구 및 배드민턴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에도막부는 일본인들이 나가지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을 봉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선진 기술과 학문, 그리고 유럽의 정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중국을 통해 받아들이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서양의 문화를 접한 후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던 탓일 것입니다. 서양과 국제정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에도막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네덜란드 상관장의 참부(參府)를 받고 항해를 하면서 얻은 국제정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술하여 보고할 것을 명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을 위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화란풍설서(和蘭風說書)로 불리우며 일본이 간접적으로 서양세계를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정식 교역품이 아닌 와키니모츠(脇荷物), 즉 주변 수입품으로 불리던 것들의 상당수가 양서(洋書)나 양서의 중국어 번역본이었는데 이런 형태로 반입된 서적도 비공식적으로 바깥 세상의 정보를 일본 내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력으로 일본은 쇄국정책을 실시하는 중에도 외부 세상의 뉴스를 빠르게 접하고, 서양 문물에 완강히 저항하던 청이나 조선과 달리 비교적 순탄하게 근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최초의 화란풍설서는 164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기밀 문서로 분류되어 막부 내에서도 고위 관료들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일본 내 양서 보급 역시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데지마의 통역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데지마 출입을 허가 받고 네덜란드인들과 직접 접촉하며 무역을 위해 필요한 번역과 통역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지식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일본 지식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통역관들은 데지마라는 무대에서 난학의 형성과 발달에 공헌한 숨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데지마의 안정과 난학의 확산

에도막부는 데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안정시키면서 1720년에 양서의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 내 난학의 지평이 확대됩니다. 에도막부의 통치기간 동안 약 1만 권에 달하는 네덜란드어 서적이 일본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유럽, 동남아,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진 정보의 네트워크는 당시로선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였을 것입니다. 이미 네덜란드어를 익히고 초기 난학자로 활동해오고 있던 데지마 통역관들은 양서를 번역하여 지식인층에 난학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수입된 프랑수아 할마(François Halma)의 난불사전을 토대로 네덜란드어-

일어 사전인 《에도 할마》를 엮은 것도 이시이 쇼스케(石井庄助)로 알려진 데지마의 통역관입니다. 통역관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었으며 실력 차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네덜란드어를 우수하게 구사하는 통역관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로 데지마에 거주한 칼 툰베르그(Carl Thunberg)는 통역관들의 네덜란드어 실력에 대해 대다수가 이상한 표현과 혼하지 않은 문구를 사용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도 할마》보다 후에 쓰인 데지마 상관장 헨드릭 도프(Hendrik Doeff)의 《도프 할마》가 더 대표적인 네덜란드어-일어 사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도프 할마의 번역 작업에서도 일본 통역관들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역관들을 ‘난학의 선구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데지마라는 무대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고 또 변용하면서 일본 전체로 난학의 확산을 도왔습니다. 현재 데지마 서기장의 주책이 난학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곳에 《도프 할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데지마의 기능 상실과 난학의 쇠퇴

1795년 나폴레옹이 네덜란드 본토를 점령한 후 영국 해군선인 판테온(Phaeton)이 네덜란드 상선으로 위장하여 데지마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일본에서 네덜란드의 위상과

난학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데지마를 통해 일본과 네덜란드의 교역이 지속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과 화란풍설서를 통해 아편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네덜란드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의 존재가 새로이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매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의 방문과 협상 강요로 일본은 1854년 미국과 카나가와 조약을 맺고 잇달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도 비슷한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의 쇄국정책은 끝이 납니다. 일본 문호 개방으로 네덜란드는 일본 무역 독점권을 잃게 되고 1856년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데지마에서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데지마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데지마의 쇠퇴와 함께 난학이 곧 서양 학문으로 통하던 시절도 끝이 나면서 난학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구미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양학(洋學)이 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확대됩니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와 메이지 유신 _난학의 끝자락을 잡은 요시다 쇼인의 국제정치학

난학이 확산되면서 직접 제자를 받거나 공부방을 열어 난학을 가르치는 일본 학자들도 생겨났는데 이 중에는 메이지 유신의 사상가로 존경 받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도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우 비판적인 상황에서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사상적 스승이라고 칭하는 요시다 쇼인을 곱게 보는 사람은 국내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에도막부 말기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칭송 받으며 메이지 유신에 이론적으로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로 꼽히는 그의 삶을 통해 난학이 어떤 모습으로 메이지 유신 및 일본의 근대화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1830년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나 30년이 안 되는 짧은 생애 동안 일본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놓은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재능을 인정 받았던 그는 10살 무렵 아편전쟁으로 동양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서구에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정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1850년 병학(兵學)을 배우기 위해 나가사키에서 유학하는 중 데지마를 방문하여 네덜란드인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음식을 먹어보는 등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합니다.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들어오는 서적을 읽으면서 난학에도 눈을 뜹니다. 이후 에도에서 수학하며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을 스승으로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쇼잔은 네덜란드어가 유창하여 당시 데지마를 통해 들어오는 난서(蘭書)들을 읽으며 서양 사정에 매우 밝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쇼잔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말기 난학을 접한 것이 쇼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무라이로서 배워온 것과 너무 다른 서양의 문물을 접한 그는 크게 충격을 받고 아편전쟁을 통해 청을 무너뜨린 서양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위력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서양을 직접 견문하겠다는 호기심에 쇼인은 일본인의 출국이 금지된 쇄국 시기에 밀항을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대표적 일화는 통상을 강요하러 왔던 미국의 페리함대가 개항 요구 이후 다시 도쿄만에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리는 그의 《일본원정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 일행은 교양이 몸에 배어 있고 유창하고 우아하게 한문을 적었다. 또한, 예의가 바르고 매우 세련되어 있었다. ……
2명의 젊은이들의 행동을 통해 일본인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일본인의 기질이야말로 장래에 대한 희망이다(페리 1856, 421).

요시다 쇼인은 페리함대의 미시시피호에 승선하여 페리에게 자신을 미국으로 데리고 갈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조약을 존중해야 했던 페리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쇼인은 결국 적발되어 투옥되고 맙니다. 당시 외국인과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밀항을 시도한 것은 매우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밀항을 시도한 쇼인의 행동은 그가 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던 ‘행함의 학문’, ‘실천의 학문’을 살아낸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옥 생활 중 그는 나가사키에서 서양의 문물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느꼈던 바를 《유수록》(幽囚錄)에 적어냈습니다. 《유수록》은 《외정론》(外征論)과 함께 쇼인의 국제정치학을 엿볼 수 있는 저서입니다. 《유수록》에는 밀항을 시도한 이유가 실려 있으며 부국강병을 통한 동아시아 침략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일본이 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존왕론(尊王論)입니다. 서양의 세력 앞에 무력한 막부를 개혁하여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국가를 세울 것을 담은 이 이론은 기존의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조공체제와 화이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과 전진을 희망하는 이론입니다. 쇼인은 천황의 권력 아래 하나로 통일된 일본만이 서양과의 불평등한 조약 앞에 무릎을 꿇은 막부 체제 하의 일본을 서양과 동등한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수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담겨있습니다.

군사 시설이나 장비 준비를 서둘러 군함과 포대를 갖추고 홋카이도를 봉건한 후 캄차카와 오후츠크를 빼앗는다. 조선을 정벌하여 예전처럼 공물을 바치도록 한다. 북으로는 만주를, 남으로는 타이완과 필리핀 일대 섬들을 노획하여 이전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 기세를 보여야 한다(요시다 쇼인 1854).

이는 후에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밑바탕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 내용과 함께 자주 인용되는, 형에게 보내는 그의 서한에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겨있습니다(김봉진 2012, 48). 어떤 기준에서 아시아는 정벌하고 미국과 러시아와는 신임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살펴보면 그 기준은 군사력, 기술력, 정보력 등으로 가늠한 국력입니다. 당시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떠안고 천한 대접을 받아야 했던 일본의 상황과, 그러한 서양 국가들에 의해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던 청나라마저 무너진 것을 본 쇼인은 약육강식의 지배 논리가 만연한 국제정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일본이 청나라나 조선과 같은 운명이 아닌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서양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탈아론(脫亞論)을 주장하며 덕과 예를 토대로 이루어지던 명분의 국제정치가 아닌 서양의 실리 중심의 국제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본에게 서양은 두렵지만 본받고 싶었던 존재였습니다. 쇼인의 현명한 점은 그의 학문이 서양 학문에만 전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중국의 관점에서 서양에 대해 서술해 놓은 서적도 즐겨 읽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해국도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쇼인은 중국의 입장에서 서양을 이해하려던 위원의 노력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다른 양서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적용하여 일본의 실정에 맞게 관점과 원칙을 새로이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쇼인의 학문은 일본이 강대국들과 전략적으로 교역하며 이어온 역사와 맥을 같이합니다.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고 그것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용하여 제시하려 했던 노력이 돋보입니다. 나가사키에서 우연히 접한 난학을 통해 시작된 그의 서양 공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이 재해석된 모습으로 일본 근대화의 이론적 기틀을 조성하게 됩니다.

쇼카손주쿠(松下村塾)로 이어진 데지마 난학과 메이지 유신

요시다 쇼인은 수감 생활 중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항을 시도한 죄로 수감되어 여러 차례 감옥을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공부 모임을 만들어 동양과 서양의 서적을 균형 있게 읽고 토론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죠슈번(長州藩)의 노야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땐 간수들조차 그의 방 앞에 앉아서 함께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그는 그곳에서 600권에 달하는 책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이광훈 2011, 96). 이런 학문에 대한 열정은 후에 고향인 하기(萩)에 쇼카손주쿠를 세워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는 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쇼인은 쇼카손주쿠에서 난학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다독을 즐겨 최대한 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되 가장 일본적인 방법으로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쇼카손주쿠에 오고 싶을 때 오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났으며 각자 원하는 글을 교재 삼아 공부했기 때문에, 수업은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교재 없이 각 학생의 관심사에 맞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학생이 많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론 형식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토론으로 밤을 지새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교육관 때문에 쇼인은 교육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교육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그곳이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천의 학문’을 가르쳤으며 이를 위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 지식이 생겨난 배경과 상황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쇼인으로부터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배움을 받은 그의 제자들은 훗날 쇼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됩니다. 막부 체제를 개혁한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晉作)와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 메이지 신정부의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 차후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대다수 쇼카손주쿠 출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서양의 것을 배우기 위해 난학의 무대였던 나가사키에서 유학하고 서양의 막강한 파워 앞에 놓인 일본의 운명을 걱정했던 쇼인은,

이러한 위기 의식에 사로잡혀 쇼카손주쿠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실천적으로 데지마의 난학을 살려내고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에게까지 이어져 현재 일본의 모습에 녹아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일본의 모습은 데지마라는 무대에서 시작된 난학을 요시다 쇼인이라는 한 사람이 일본의 근대화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참고문헌

김봉진. 2012. “선비와 사무라이의 공공의식.” <공공의식 국제학술회의: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식 비교 연구> 발표, 서울, 11월 21일.

이광훈. 2011.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 조선과 일본의 엇갈린 운명》.
서울: 따뜻한 손.

정하미. 2005.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파주: 살림.

Perry, Matthew Calbraith. 1856.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performed in
the years 1852, 1853, and 1854, under the command of
Commodore M.C. Perry, United States Navy, by order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Beverley Tucker,
printer. Accessed June 20,
2014. [http://archive.org/stream/narrativeofexped0156perr/narr
ativeofexped0156perr_djvu.txt](http://archive.org/stream/narrativeofexped0156perr/narrativeofexped0156perr_djvu.txt).

Varma, Sarita. 1998. “A taste of adventure: The history of spices is the
history of trade.” *Economist* 12.

Yoshida, Shoin. 1940. “Yushuroku.” *Yoshida Shoin Zenshu* 1. Tokyo:
Iwanami Shoten.

글로버의 날갯짓이 일본과 동북아의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일으키다

_구라바엔(Glover Garden, グラバー園)

김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들어가며

구라바엔(グラバー園)은 미나미야마테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언덕은 1800년대 후반에 유럽인들이 살던 주요 지역으로 그 흔적이나 문화가 남아 있는데, 초입에는 그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의 원조 격이라는 시카이로(西海樓)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몇 주 전부터 예약이 모두 차 있어 결국 숙소인 도미 인 나가사키(Dormy Inn Nagasaki) 근처 차이나 타운 초입에 있는 교카엔(京華園)에서 나가사키 짬뽕을 맛있게 먹고 미나미야마테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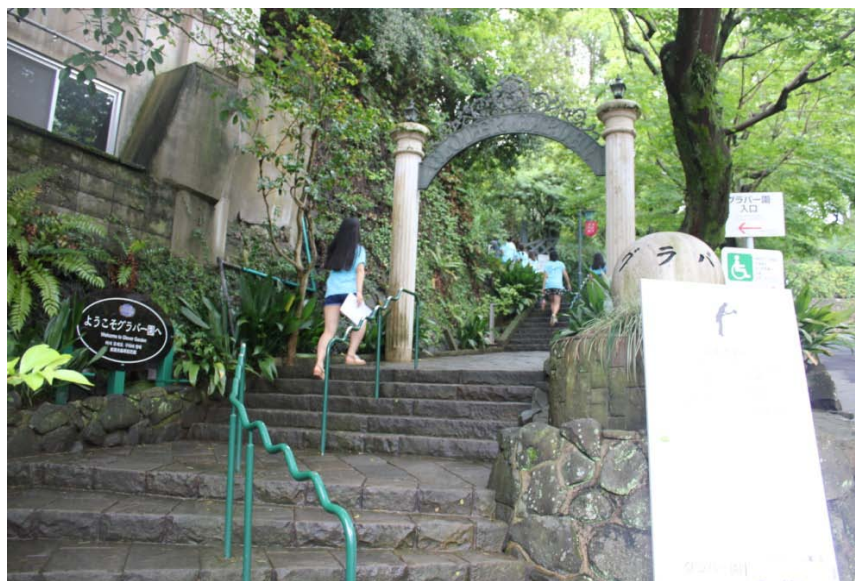
미나미야마테 언덕 위에는 오우라 천주당(大浦天主堂, 오우라 텐슈도, おおうらてんしゅどう)이라든가 구 러시아 영사관 등 각종 옛 건물들과 나가사키 3대 카스텔라 전문점으로 손꼽히는 분메이도(文明堂)본점이

있습니다. 미나미야마테 언덕에 머무는 동안 근대의 개항장 중 하나로 일본 국내와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였던 예전 나가사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미나미야마테 언덕에 오르는 길 양 편으로 각종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해 있어서 이곳이 일반 관광지로도 꽤 명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오르막길 끝에는 마치 바깥 세상과 격리된 듯 고요한 분위기의 잘 정리된 구라바엔의 입구가 나옵니다. 우리 일행이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내린 소나기 때문이었는지 마침 사방에 형형색색의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구라바엔은 오페라 ‘나비부인’의 배경으로 유명한 곳이고, 동아시아 근대사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글로버의 혼이 멀리서 온 우리 일행을 맞이하는 듯 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 미나미야마테 언덕길



▲ 구라바엔 입구

구라바 저택은 언덕 위에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19세기의 영국식 목조 건물입니다. 이 외에 나가사키 시내에 흩어져 있던 유럽식 건물들을 모아서 지금의 구라바엔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은 영국식 건축 양식과 일본식 건축 양식이 섞여 있습니다.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구라바 저택과 구 링거주택, 구 올트 주택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이 건물은 홍콩이나 상하이에 거주하던 유럽인들의 고유한 건축 문화인 방갈로(Bungalow: 단층에 베란다가 딸린 작은 목조주택)입니다. 또 건축은 당대의 빅토리아 시대 건축 양식이라기보다 한 시대 이전의 조지아 양식(Georgian aesthetic)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베란다 바닥을 돌로 깐 점과 아치를 격자 모양으로

지는 점, 창문이 프랑스식인 점들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문화의 영향은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악마의 머리’ 기와라든지 잉어가 노니는 일본식 연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유럽인이 아니라 코야마 히데노신이라는 일본 건축가가 지었다고 합니다(McKay 1993, 39-40).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처럼 이런 사실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건축물을 보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미 세상을 오래 전에 떠났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저택을 허물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이곳은 현재 나가사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도착했을 때 구라바엔에 가랑비가 축축히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운치가 있었습니다. 발제 장소로 올라가면서 본 저택과 전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저택이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인 ‘나비부인’의 배경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비부인의 주인공 ‘쵸쵸상’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구라바 저택 정원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 돌아오지 않는 ‘핑크튼’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쵸쵸상’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라바 저택에 살았던 일본인인 글로버의 둘째 부인은 버림받는 일 없이 나비부인의 스토리와는 다르게 글로버와의 사이에 한 명의 딸을 두고 32년 동안 을 해로하며 살았다고 하니 구라바엔에서 ‘쵸쵸상’을 떠올리며 슬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Madam Butterfly)과 한중일의 개항(開港)

국제정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관광객들이 나가사키에 와서 구라바엔을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유는 물론 그 공원이 아름다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보다 큰 이유는 ‘어느 개인 날(Un Bel Di)’이라는 아리아로 유명한 오페라 나비부인 때문일 것입니다. 구라바엔은 실제 그 사랑이야기의 무대가 된 저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구라바엔의 한 구석에는 오페라를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또 마치 남산 정상 난간에 자물쇠를 걸어두면 연인들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전설처럼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정원 바닥의 하트모양 돌을 두 개 찾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특히나 연애 사업을 인생에 있어 중대하다고 여기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 하트를 찾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정작 갔을 땐 하나밖에 찾을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1885년 피에르 로티(Pierre Loti)라는 필명을 사용하던 프랑스 군인 줄리앙 마리 보(Julien Marie Vaud)가 글로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회고록에 쓴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존 루터 롱(John Luther Long)이 그 회고록을 읽고 ‘나비부인’(Madam Butterfly)이라는 소설로 1898년 <아메리칸 센츄리 매거진>(American Century Magazine)에 기고하였습니다. 마담 버터플라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말이 이때 바뀌었다고 합니다. 1900년에 푸치니가 나비부인 연극을 보고 나서 오페라로 쓰기로 결심하였고 오페라는

1904년에 대히트를 치며 1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 받고 있습니다(McKay 1993, 177).

글로버의 여러 부인들 중에 오페라 나비부인의 실제 인물은 바로 장남 토마스 알버트 글로버(Thomas Albert Glover, 일본명: 구라바 토미사부로, 1870-1945)의 친모인 카가 마키였습니다(McKay 1993, 4). 카가 마키는 1870년 글로버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글로버에게 받아 들여 달라고 찾아갔으나 글로버는 이미 츠루와 1년 전 정식으로 혼인을 올린 것을 핑계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카가 마키는 아들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당시에 단지 그녀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항 이후 나가사키는 유럽인 여자들이 살기에는 치안이 불안정하고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혼인할 짝을 찾지 못했고, ‘임시적으로’ 일본인 부인을 두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녀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McKay 1993, 136).

이런 당시 모습을 반영했던 미국장교 ‘핑커튼’과 게이샤였던 ‘초초’상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유독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시기에 그려진 이와 같은 사랑이야기는 동양 남자와 서양 여자의 행복한 사랑이야기보다 서양 남자와 동양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그려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서양 남자와 동양 여자의 비극적 사랑’이라는 모티브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매력적이기도 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당시 한중일의 개항사와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나비부인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 주권 국가들 중심의 국제사회인 서양 국제질서와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원리로 운영되던 동양 국제질서가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중일과 서양의 만남은 모두 폭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천하국제질서의 중심이었던 중국은 1841년 2차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 맺은 최초의 대(對)유럽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1842)을 통해 개항되었고, 후에 중국은 애로호 사건(1856)과 텐진조약 체결(1858)로 구미 열강들의 중국 침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김용구 2006, 288-295).

그런데 특히 영국보다 미국이 일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미국 내에서 면직 산업이 크게 발달하여 중국으로의 면 수출량이 전체 면 수출량의 20-30%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석탄 공급지가 필요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에서는 포경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어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54년 미국의 페리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막부에 개국 요구를 하였으나 순탄치 않자 무력시위를 자행하였고, 일본은 결국 가나가와 조약(1854)을 맺으며 처음으로 구미 열강과 조약을 통해 개항을 합니다(김용구 2006, 181-321).

하지만 청나라와 조선은 군사적 충돌 이후 질곡의 불운한 역사를 겪은 반면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실제로 구라바엔에 살았던 글로버와 그의 둘째 부인의 평탄한 삶과 더 유사합니다. 강제적 개방 이후 일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럽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 역사의 시작에서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왕이나 성주가 살았던 궁궐도 아닌 한 외국 상인의 사택인 구라바엔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오랜 시간 기려지는 이유가 단지 저택이 아름답다거나 전망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대충 눈치채셨나요? 이쯤에서 이 저택에 살았던 글로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일행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아닌 평범해 보이는 공원까지 온 이유를 매우 궁금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북아의 역사를 살다간 풍운아,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Thomas Blake Glover, 1838-1911)는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에버딘(Aberdeen)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당시 밀수 감시 등을 담당하던 해안 경비대(coast guard) 소속이었고, 그의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글로버는 5남 1녀 중 넷째로 위에 세 명의 형이 있었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버딘은 해운 산업이 매우 발달하였고 이러한 환경은 글로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범한 에버딘의 소년들은 자라서 선박 중개인이거나 선장이 되지만, 글로버는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세 명의 형들과는 달리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떠납니다. 글로버가 중국 상하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상하이에서 유명했던 무역회사인 자르딘 마티슨 사(Jardine & Matheson Co., 이화양행)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글로버와 먼 친척 뻘이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교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 1857년 19살의 글로버는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후에 글로버의 형제들도 글로버를 통해 극동, 특히 일본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McKay 1993, 5-13).

당시 중국 상하이는 개항한 지 이미 15년 이상 흐른 뒤였고, 글로버가 도착할 즈음에는 유럽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상해에서 영업을 하던 자르딘 마티슨 사는 이 당시에 홍콩에서 급성장하던 무역회사로, 차와 실크무역, 해상운송, 보험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중국에 대한 아편 무역을 독점하던 영국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글로버는 나가사키로 떠나는 1959년까지 약 3년 간 무역업 등에 대해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McKay 1993, 14-15).

글로버가 극동 아시아에 도착하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서양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개항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1858년 가나가와 조약을 시작으로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고 나가사키는 이 조약을 통해 개항장이 되었습니다. 글로버가 나가사키까지 오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격동적인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 나선 스코틀랜드 출신 무역상 케네스 맥킨지(Kenneth Ross

Mackenzie)를 따라 21살의 글로버는 1859년 9월 19일 파도에 떠밀리듯 나가사키에 상륙하며 일본과 그의 길고 긴 인연을 시작하였습니다 (McKay 1993, 18-19).

약 2년간 자르딘 마티슨 소속으로 맥킨지 아래서 일을 하던 글로버는 1861년까지 당시 나가사키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었던 테지마에서 거주하였습니다.¹ 1861년 이윤이 적은 일본 무역에 흥미를 잃은 맥킨지가 떠나며 남기고 간 돈으로 그는 1860년부터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된 오우라, 현재 미나미야마테 동산 맨 위에 자신의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1863년에 완공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글로버 가든입니다(McKay 1993, 30). 맥킨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시점부터 글로버는 차(茶)무역을 하며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McKay 1993, 34),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닦아놓은 일본어 실력으로 사무라이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일본은 각 막부세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고, 도쿄를 중심으로 한 에도막부와 나가사키가 위치한 사츠마 번의 사무라이들은 쇼군과 그들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글로버는 이러한 사무라이들과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쌓았고, 이때의 친분을 그의 남은 일생 동안 유지합니다(McKay 1993, 37-39). 이러한 모습은 1910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스코틀랜드 사무라이(Scottish Samurai)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¹ “The Last explorers, Thomas Blake Glover.” BBC Scotland, December 15, 2011. <http://www.youtube.com/watch?v=pzvo31RrPqo> (검색일: 2014년 6월 21일).

이 때 일본의 정치상황은 무척 불안정하였습니다. 개국을 기점으로 막부는 많은 번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통상조약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했던 천황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조약 이후로 존왕양이(尊王攘夷: 천황을 받들어 외국을 배척함)를 주장하는 사무라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쇼군이었던 이메모치 토쿠가와는 천황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음에도 모든 번의 세력을 통제할 리더십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교토 정부가 이 결혼을 통해 정치권력의 중심에 등장함으로써 막부체제 종말의 서막을 알렸으며, 급진적이었던 사츠마, 미도, 조슈 번을 중심으로 반발심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통상조약으로 경제적 혼란이 가속화되어 일본인의 생활이 피폐해졌는데 이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외국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1862년에는 에도에 있는 영국 공사관이 계획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항장인 요코하마에서 조금 떨어진 나마무기라는 마을 근처에서 라이딩 트립을 하던 영국인들 한 무리가 에도에서 교토로 향하던 사츠마 사무라이들과 맞닥뜨리자 한 사무라이가 ‘무례하다’며 리차드슨(Charles Lennox Richardson)을 살해하고 다른 두 명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나마무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듬해 영국은 그 동안 있었던 일련의 자국민 피해사건에 대해 막부에 10만 파운드의 배상금과, 사츠마 번에는 연루자의 사형집행과 2만 5천 파운드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장팔현 2011, 207).

일본에 근대화 미래의 씨앗을 심다, 장주 5결

이렇게 영국과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던 1863년 글로버는 그 유명한 ‘장주 5결’(Choshu Five)을 도망시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이를 계획하였고 여기에 1년 전 영국 공사관 방화사건에 연루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앤도 킨스케, 이노우에 마사루, 야마오 요조가 모였습니다. 글로버는 이 총명한 사무라이들을 자르딘 마티슨 사와 연결해 상하이로 거쳐 영국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으며 이들은 요코하마에 있는 글로버의 회사 지점에서 은신하며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당시 일본인이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받을 만큼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발각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은 글로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버는 정원에 대포를 설치하여 혹시라도 발각되어 공격 당할 것에 대비하여야 했고 우리 일행도 이 대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버 저택 내에는 비밀공간이 있는데 정말 조슈 5인 등 많은 사무라이가 그 곳을 은신처로 삼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때문에 이들은 여행을 위해 상투를 자르고 떠나는 날은 영국 선원의 유니폼을 빌려 입고 횡설수설하며 외국인처럼 보이도록 하여 해변에 있는 경비들을 따돌리고 배의 연료 저장소에 숨죽인 채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 조슈 번에 보고되기 전에 일본을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 긴장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고, 그들이 떠나기 전날 조촐히 치러진 작별파티에서도 다섯 명의 젊은 사무라이들은 긴장을 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무사히 일본을 떠나 상하이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McKay 1993, 45-47).

이노우에 가오루는 거대한 서양 증기선들과 군함들이 정박되어 있는 상하이의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일본은 절대 서양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쓰디 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상하이의 자르딘 마티슨 사의 매니저는 그들이 항해술을 배우려는 선원이라고 착각하여,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회사의 300톤급 ‘폐가수스’라는 범선으로, 나머지 세 명은 여객선의 승객으로 런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유럽까지 가는 넉 달의 긴 여행 동안 선원으로 대우받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노동과 심한 멀미 때문에 끔찍할 정도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겨우 영국에 도착한 그들은 영국의 자르딘 마티슨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 때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 Williamson)이라는 당시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화학과 교수가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윌리엄슨의 집에 머물며 박물관, 갤러리, 대학 등을 견학하였고 런던대학의 많은 학생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에버딘에 있는 글로버의 본가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정치적인 동기부여를 하였으나, 요조 야마오는 기술적인 발전에 더 관심을 갖고 조선 기술을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변영을 누리고 있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견학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크나큰 충격과 감동을 느꼈을지는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정부의 주요 인사가 되어 나아간 행보를 본다면 다른 것보다도 “섬들이 모인 작은 나라인 영국도 변영을 누릴 수 있다면 일본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McKay 1993, 47-48).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1863년 영국은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8월 15일 사츠마 선박 세 척을 나포하며 사쓰에이 전쟁(薩英戦争, Anglo-Satsuma War, Bombardment of Kagoshima)을 일으키며 사츠마 번의 중심지인 가고시마에 폭격을 가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츠마 번의 사무라이들은 ‘양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됩니다(장팔현 2005, 208). 그리고 이 사건은 후대에 역사적인 장군으로 남게 될 헤이하치로 토고(東郷平八郎: 1848-1934)를 비롯한 젊은 사무라이들에게 서양 문명의 우월성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글로버가 1964년 한 번 더 ‘사츠마 19인’을 영국으로 파견하는 배경이 됩니다. 조슈 번이 이런 식으로 ‘양이’의 불가능을 깨달았다면 영국으로 도망친 조슈 번 출신 다섯 명의 사무라이들은 영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양이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Mckay 1993, 60).

처음부터 ‘양이(攘夷)’를 목표로 하고 청소년기부터 ‘존왕양이’ 운동을 바탕으로 암살자 교육을 시켰던 사츠마 번과 조슈 번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쇄국적 태도를 재빨리 전환합니다. 사츠마 번과 조슈 번에서 서양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이러한 분

위기를 파악한 글로버는 1861년에 형인 제임스 글로버(James Glover)와 함께 세운 글로버 앤드 컴퍼니(Glover & Co.)를 통해 기존에 하고 있던 차(茶)와 실크무역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무기와 중고 선박을 수입하며 큰 수익을 얻기 시작하는데 1864년에는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해에 둘째 형인 알렉스 글로버(Alex Glover)가 합류하였고 첫째 형인 짐(Jim)은 에버딘으로 돌아가고, 글로버 회사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McKay 1993, 54). 기도 다카요시의 일기를 보면 글로버를 토쿠가와 막부 말기에 토쿠가와 막부에 대항하는 번들에 무기를 수입하고 학생들을 유학 보내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상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의 글로버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Brown 1993).²

한편, 국내적으로 조슈 번의 존왕양이파는 교토로 쳐 들어가지만 막부는 이러한 반란을 제압하였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연합 함대는 시모노세키 포대를 공격하여 조슈 번을 함락시키면서 존왕양이 운동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국내정세를 전해 들은 조슈 5인 중 이토와 이노우에는 서둘러 귀국하였습니다(Mckay 1993, 54). 이 두 사무라이는 곧 조슈 번의 주요 인사가 되었고, 글로버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기거래로 사츠마 번과도 긴밀한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1865년부터 1868년까지 글로버가 수입한

² Sidney Devere Brown,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CROSSROADS* 1, (1993) accessed June 22, 2014. 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총만 17만 정에 달하는데 그것은 240만 달러에 상당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 94).

메이지 유신이 있던 1865년 글로버는 당시 주일 영국대사였던 해리 파크(Harry Parke)경을 설득하여 일본의 국내 문제에 대해 영국정부에 사츠마 번과 조슈 번의 봉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파크 경으로 하여금 가고시마를 방문하여 사츠마 번주를 만나도록 하여 영국이 일본 국내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글로버의 저택에는 메이지 유신 3걸 중 한 명인 기도 다카요시(木戸 孝允: 1833-1877)와 같은 조슈 번 사무라이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McKay 1993, 109). 또한 글로 사츠마 번과 조슈 번의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반쇼군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일약 스타가 된 료마 사카모토 또한 글로버 저택을 거쳐 간 사무라이 중 한 명으로 글로버를 통해 가메야마조합(龜山社中)을 만들어 군량미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³

1866년 막부는 조슈 번을 공격했지만 패배하였고 쇼군 이에모치가 병사하면서 요시노부가 쇼군에 오릅니다. 그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1867년 사츠마, 조슈 번, 도사 번은 왕정복고령을 발표하고 천황이 에도성에 입성함으로써 260년간 지속되었던 에도막부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장팔현 2005, 209).

³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

에도막부 시대가 끝나기 전후 글로버는 지금의 사세보 근처 다카시마에서의 광산 개발 계획과 나가사키 항에 도크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첫 전함인 ‘호쇼마루’가 에버딘에서 건조되어 출항하였습니다(McKay 1993, 108). 또한 이 시기 미성숙한 혁명에 동력을 제공한 인물도 글로버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요 인물이던 기도 다카요시는 1868년 일기에서 “우리(글로버와 기도 다카요시)는 지난 3년 간의 사건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그리고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많았다”고 적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글로버의 보이지 않는 공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Brown 1993).⁴

1868년 글로버 회사는 고베와 오사카에 지사를 여는 등 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몰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무가 점점 축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버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전함 ‘조슈마루’(후에 메이지 천황이 ‘류주마루’라고 명명), 세 번째 전함인 ‘웬쇼마루’를 건조하였습니다. 이 전함들은 몇 십 년 후에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일본 해군력의 핵심이 됩니다(McKay 1993, 130-131).

글로버는 전함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것이 1870년 글로버 회사를 파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의 빚은

⁴ Sidney Devere Brown,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CROSSROADS* 1 (1993). Accessed June 22, 2014. 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50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의 전 재산은 20만 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글로버는 1983년 소유한 광산을 마티슨 사에 매각했습니다. 글로버는 몇 년 동안 빚을 갚으며 광산을 대신 관리하였는데, 당시 석탄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생산비용의 절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1875년 광산에서 폭발사고로 이어졌으며, 이 사고로 5명이 죽고 4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일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겪은 최초의 산업재해로 기록되어 글로버의 업적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McKay 1993, 150).

일본 공업화의 선두주자, 미쓰비시

1876년 글로버는 미쓰비시 회사의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수락합니다. 1881년 석탄가격의 하락과 잦은 폭동으로 결국 자르딘 마티슨 사는 광산을 미쓰비시에게 넘기고 글로버가 광산 관리인으로 다시 나가사키로 돌아올 때까지 글로버는 귀한 대접을 받으며 도쿄에 머무니다(McKay 1993, 152). 현재 일본의 대 재벌 기업인 미쓰비시(三菱グループ)는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가 세운 회사로 1870년 운송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광산업과 조선, 은행업, 보험, 창고업 그리고 무역으로 업종을 다변화시킵니다. 또한 산업 부문을 제지, 철강, 유리, 전자기기, 항공, 정유, 부동산으로 확대시키는데 이 부문은 일본의 근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미쓰비시 은행은 1919년 설립되어 1996년 도쿄 은행과 합병한 뒤로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되었고, 1950년 설립된 미쓰비시 코퍼레이션은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무역회사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모터스, 미쓰비시 핵 산업, 미쓰비시 화학, 미쓰비시 전기, 니콘이 모두 미쓰비시 계열입니다. 150년 동안 일본과 운명을 함께 해 온 미쓰비시는 현재 일본의 3대 재벌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⁵

말년에도 글로버는 계속해서 일본의 근대화 역사를 써 나갑니다. 일본 최초의 맥주는 글로버가 1885년 설립한 맥주회사에서 1888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그 때 만들어진 맥주가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 기린맥주입니다. ‘기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츠루의 딸인 한나가 글로버의 수염이 상상의 동물인 기린과 닮아서 기린으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로버 또한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한 기린맥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Mckay 1993, 173). 비록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맛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기린맥주는 당시 글로버를 비롯한 일본에 살던 유럽인과 메이지 시대 일본인의 입맛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가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문화재’나 다름 없다고 하겠습니다.

말년에 글로버는 일본 근대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08년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2등급 훈장을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때 글로버의 공로를 치하하는 문서가 자그마치 20쪽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보를 마지막으

⁵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EB%A>

로 1911년 12월 16일 글로버는 도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McKay 1993, 4). 그가 사망한 후, 오비이라(烏飛梨落)처럼 절묘하게도 일본역사는 제국주의와 전쟁, 침략으로 점철되는 어두운 역사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날갯짓으로 생긴 바람이 태풍으로 변하다

글로버가 처음 지원하였던 장주 5걸들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포석이 되는 메이지 유신의 주요 인물들이었으며, 메이지 유신 후에도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을 이끌어 나갔던 만큼 말기의 행보는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대 일본의 기틀을 마련하여 추앙 받는 정치가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되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는 왕정복고 후에 주로 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메이지 3걸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정일성 2002, 242). 그러다가 당시 실세였던 오키키 시게노부를 정권에서 퇴장시키고 메이지 천황의 신임을 독차지하게 됩니다(정일성 2002, 254-255). 이토는 1885년 관제개혁을 통해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된 것을 기점으로 일본사에서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서의 큰 업적을 쌓기 시작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과의 끈질긴 악연도 시작되었습니다(정일성 2002, 267-268).

메이지유신이 성공리에 성사되어 일본에 서양식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내각총리대신은 반정부세력의 불만을 진압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계기로 조선 침략을 통해 일본 내 안정을 찾아야겠다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정일성 2002, 62-65). 이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을미사변에 관여하였으며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을 거쳐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듬해에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어 내각을 친일파 중심으로 개편하고 각종 수탈 정책을 폈으며, 특히 1907년 헤이그 밀사 파견을 빌미로 강제로 고종을 양위하도록 하면서 당시 식민지 조선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정일성 2002, 116-140).

이토 히로부미 못지않게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いのうえかおる: 1836-1915) 또한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비록 구한말 개화 사상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후에 을미사변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동인, 어윤중, 박규수, 유대치와 교류한 바 있고, 김옥균, 서광범, 윤치호, 유길준의 일본 유학기간 중 비용과 숙식을 지원하였습니다.⁶ 하지만 주조선 공사로 1894년 임명되고 나서 삼국간섭 뒤에 당시 조선 조정을 좌지우지하던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긴밀히 연락하는 것을 보고 을미사변을 일으키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정일성 2002, 79-87).

⁶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EB%A3%A8>

장주 5결 중 두 명 모두 조선의 식민지화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글로버가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젊은이들이 하나의 큰 바람이 되어 이웃 나라 조선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한편 창립 초기에 글로버가 고문관으로 있던 미쓰비시는 근대화 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며 성장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쓰비시는 가미카제 공격용 전투기, 잠수함 등 군수품을 만들며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데자뷰는 이미 1800년대 중반 가장 혼란스러웠던 쇼군체제 붕괴 전후에 글로버 회사가 군수품을 납품하며 크게 성장하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미쓰비시는 군수품을 생산하는데 저렴한 대량의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중국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군함섬 등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임금체불을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미쓰비시와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다가 최근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는 아직도 일본의 우익세력을 후원하며 역사 왜곡 교과서 편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⁷

⁷ Wikipedia.<http://ko.wikipedia.org/wiki/%EB%AF%B8%EC%>

글로버, 동북아의 파란을 일으킨 한 마리의 나비

‘나비효과’는 서울에서 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내일 북경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글로버는 그러한 점에서 한 마리 나비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가 순수하게 상업적 동기에서 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의 활동이 없었다면 현재의 일본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중국과는 분명 다른 양상을 띠었으며 뒤이어 일본에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야기하며 태풍처럼 전쟁과 침략, 식민으로 점철되는 동북아에 파란만장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 바람은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1일 영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런던대학을 방문하여 조슈 5걸 기념비를 시찰하였다고 합니다. 2013년은 조슈 5걸이 영국의 땅을 밟았던 150주년이 되는 해였고, 영국 주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조출한 기념식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버가 시작한 흐름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구라바엔에 앉아 있노라면 글로버와 당시 격정적인 일본역사의 주역들이 담소 나누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두런 두런 들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라바엔은 거대한 태풍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라바엔은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도 매우 뜻 깊은 장소가 아닐는지요? ■

3. 글로버의 날갯짓이 일본과 동북아의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일으키다: 구라바엔



▲나가사키 항구를 배경으로 찍은 하영선 교수님과 사랑방 3기 단체사진

참고문헌

- 김용구. 2006. 《세계외교사 = Diplomatic history》.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
화를 만나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팔현. 2005. 《일본 역사와 외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통사》. 서
울: 아진.
- 정일성. 2002. 《이토 히로부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서울: 지식
산업사.
- BBC Scotland. 2011. “The Last explorers, Thomas Blake Glover.”
December 15. Accessed June 21,
2014. <http://www.youtube.com/watch?v=pzvo31RrPqo>.
- Brown, Sidney D. 1993.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CROSSROADS* 1.
Accessed June 21,
2014. [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
staff/earns/meiji.html](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Life of Thomas Blake Glover*.
Edinburgh: Canongate Books Ltd.

도시의 비밀과 꿈을 간직한 곳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하보람

가톨릭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3 기의 일본 답사 둘째 날인 2014 년 6 월 27 일, 나가사키에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에는 네덜란드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던 데지마를 둘러보았고 오후에는 아름다운 글로버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점심에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는 원폭자료관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가사키가 간직한 비밀과 꿈을 찾고 싶었습니다. 날씨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적적한 느낌을 가진 이 도시의 비밀에 대해 알기 위해서, 69 년 전 여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가사키가 간직한 아픔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아픔이 어떻게 나가사키의 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1945 년 8 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은 2 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미국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일본의 항복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미국의 원폭 사용은 결국 종전을 앞당기고 무조건적 항복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대가라고 하기에는 일본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원하던 바를 달성했지만, 신무기가 초래한 비극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국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오펜하이머(Julius Robert Oppenheimer)는 원폭 투하 후 그 끔찍함을 실감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신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Giovannitti and Freed 1965, 197).

나가사키는 왜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69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국제학도들은 왜 이곳에 모여와 그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일까요? 1945년 나가사키의 비극이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역사 속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여름, 잊히지 않는 기억

원폭자료관은 아마 조용한 이 도시에서 가장 조용한 곳일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규모에 놀랐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상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느낌…… 자료관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11 시 2 분을 가리키는 벽시계였습니다. 이곳에 원폭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각입니다. 원폭의 이름은 ‘팻맨’(Fat Man)이었습니다. 69 년 전, 나가사키를 초토화시키고 10 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그 원폭(Bernstein 1995, 150)으로, 이름 그대로 모양이 뚱뚱한 사람 같습니다.

전시실 내부로 들어가보니, 원폭에 의해 폐허로 변한 나가사키 시내와 우라카미 성당의 참상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건물의 파편들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 피폭당한 사람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실제 피해 현장을 보는 듯이 생생해서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참상을 만든 핵무기는 미국이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39 년 후반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가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45 년 4 월,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이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가 최초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비밀 프로젝트는 맨하튼 프로젝트(Manhattan District Project)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Los Alamos)에 모여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자된 비용은 20 억 달러가 넘었고 고용 인원은 무려 13 만 명이나 되었습니다(BBC 2008).

1945 년 5 월에 미국에서는 이미 원폭이 투하될 장소를 결정하는 논의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타겟 목록에 히로시마가 포함되어 있었고 나가사키는 원래 목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원폭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위험성과 원폭 투하 고도 및 날씨, 미션 실패 시 대응 방안, 타겟 설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역시 진행되었습니다(Oppenheimer, 1945). 같은 시기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일본과의 태평양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본토에 여러 차례 폭격을 가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백기를 들지 않았고, 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공격해 전면전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면전을 치를 경우 연합군은 약 100 만 명, 일본군은 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결사항전 의지는 4 월부터 6 월까지 치러진 오키나와 전투에서 잘 드러났고, 미국은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BBC 2008). 미국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는 하루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원폭 투하를 대통령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미 전 대통령은 본토 상륙작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스티븐 전쟁장관에게 원폭 투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Malloy 2008, 99).

1945 년 7 월 16 일 뉴멕시코 주의 로스앨러모스에서 최초로 원폭 실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일본 본토 공격을 승인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를린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은 성공적인 원폭 실험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미국의 젊은이들이 본토에서 희생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축하를 들었습니다(BBC 2008). 포츠담 회담 중 쓴 트루먼의 일기에 보면 원폭의 구체적 투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8 월 10 일 전에 일본을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다. 나는 전쟁장관 스티븐슨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대상은 여자와 아이들이 아닌 군인들이 될 것이다(Bernstein 1980, 34).

당시 미국이 요구한 무조건 항복에 대해 일본은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항복만을 요구하는 것은 전쟁종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쟁차관이었던 맥클로이(John C. McCloy)는 포츠담 회담 선언문에 일본 천황제의 보존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천황제를 보존시키겠다는 조항이 없으면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McCloy 1945). 일본 천황제의 지속을 보장하도록 항복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츠담 회담을 목전에 둔 7 월 초까지도 미국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정부 지도세력은 ‘수용 가능한 최소의 항복조건’에 대한 합의나 고려 없이 원폭이라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미국이 왜 ‘무조건적 항복’만을 고집했는가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논의나 고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1940 년 9 월부터 미국 정보부는 ‘매직’(Magic)이라는 명칭 하에 일본 외무부의 전보에 담긴 통신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1945 년 7 월 중순부터의 ‘매직’ 도청으로, 트루먼과 그의 참모들은 연합군이 ‘무조건 항복’보다 유연한 요구를 할 경우에 천황이 조건부로 항복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상황실의 당직 장교였던

해군 대위 조지 엘시(George Elsey)에 따르면 미국은 천황의 기존 지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선언문의 내용을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으로 수정했습니다(BBC 2008). 그렇게 수정된 포츠담선언문의 제 13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 군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다.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즉각적인 완전 파멸로 대응할 것이다(Potsdam Declaration 1945).

그러나 이 수정 조항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발 물러선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스즈키(鈴木 貫太郎) 수상은 “우리는 이를 묵살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완수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항전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Hasegawa 2006, 168). 도고(東郷 茂徳) 외무장관은 소련 주재 사토(佐藤 尚武) 대사에게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거절하며 천황은 “무조건 항복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떠한 소련의 중재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결국 일본은 7 월 28 일, 포츠담 선언에 대한 거부 성명을 냈고, 이는 미국의 원폭 투하 결정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극단적 결정만은 막고 싶었던 미 국무장관 제임스 번즈(James Byerns)는 원폭 투하가 아닌 이상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매우 낙담했습니다.

나는 매우 실망했으며 원폭 사용을 피하고 싶었던 우리의 희망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깨달았다(Byrnes 1947, 263).

원폭은 태평양을 건너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섬(Tinian Island)으로 수송되었습니다. 1945 년 8 월 6 일 아침,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1 차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8 월 7 일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쟁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 올 원폭이 히로시마에 투하됐다……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다른 장소에 또 한번의 원폭이 투하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 전역에는 경고 내용을 담은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Attention

Japanese People)이란 제목의 전단에는 일본 군사 지도자들이 포츠담 선언의 13 가지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 관료들은 천황을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천황은 더 이상 전쟁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전쟁을 종결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cabinet meeting 1945).

스즈키 수상은 8월 9일에 최고 전쟁지도 회의를 소집했으나 당일 아침, 소련의 참전 소식과 함께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폭 이후에도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항복에 대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육군장관 아나미(阿南 惟幾)는 “일본은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급 군인들은 항복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한 쿠데타를 획책하기도 했습니다(Hasegawa 2006, 235-238). 스즈키 수상은 그나마 천황을 보존할 ‘어둠 속의 희미한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천황은 포츠담 선언의 요구를 수락하며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대동아 전쟁 종결 조서’(大東亜戦争終結/詔書)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 방송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표준시 기준 정오에 일본 방송 협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음방송(玉音放送)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무릇 제국 신민의 안녕을 꾀하고 세계만방이 공영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은 예로부터 황실 조상이 남긴 법도로서 짐이 삼가 신불에 바치는 바이다. 앞서 미·영 두 나라에 선전포고한 까닭도, 또한 실로 제국의 동아시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나아가, 타국의 주권을 배제하고 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짐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데 교전 상태는 이미 4년의 세월이 지나, 짐이 육해군 장병의 용맹, 짐의 문무백관의 근면, 짐의 억조창생의 봉공, 각각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국면을 만드시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이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 잔혹한

폭탄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무고한 백성을 살상하고 참담한 피해를 입히는 바,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일찍이 교전을 계속했으나, 마침내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의 문명마저도 파괴할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짐이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백성을 보호하고 황실의 신령에게 사죄할 것이며, 바야흐로 짐의 제국 정부로서 공동성명에 응하게 되친기에 이른 연유이다.

천황은 단 한 번도 ‘항복’이란 단어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미국의 잔혹한 공격이 불러온 참담한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1945 년 9 월 2 일에 일본은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USS 미주리(BB-63) 선상에서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2 차 대전을 종결시킨 두 번의 원폭 그리고 나가사키가 간직한 아픔에 얹힌 이야기입니다.

2014 년 여름, 나가사키의 꿈

원폭자료관에서 눈에 띈 것은 자료관 곳곳에 걸린 수많은 종이학이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나가사키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핵무기와 평화라니. 언뜻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사키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가슴 아픈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나가사키의 간절한 꿈이겠지요. 자료관

벽에 빼곡한 메시지들과 종이학을 보면서 불과 69년 전 폐허로 변했던 도시가 지금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니 역설적입니다.

나가사키 평화공원은 자료관에서 10여분 떨어진 거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화공원으로 이동하여 만난 분수는 비가 오는 날이라 틀어놓지는 않았지만, 분수의 물줄기는 비둘기의 날갯짓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공원 중간에 자리한 거대한 평화기념상은 마치 나가사키를 지키는 평화의 수호신 같았습니다. 나가사키 출신의 조각가인 기타무라 세이보(北村西望)의 작품입니다. 하늘을 향한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수평으로 뻗은 왼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감긴 두 눈은 원폭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동상 아래 ‘작가의 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악몽 같은 전쟁 소름 끼치는 처절함과 비참함
육친을, 남의 아이를 뒤돌아보는 것조차 힘든 심정
어느 누가 평화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곳에 전 세계 평화운동의 선구로서 이 평화기념상이 탄생했다.
신과 같은 성철 그것은 강인한 남성의 건강미 전체 길이 삼십 이여 척
오른손은 원폭을 가리키고 왼손은 평화를
얼굴은 전쟁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여기 인종을 초월한 인간 때로는 부처 때로는 신
나가사키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영단과 정령
이제 인류 최고의 희망의 상징

- 1955년 봄날에 기타무라 세이보(北村西望)-

나가사키 그리고 한국

2014 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국제학도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요? 한국인으로서 나가사키의 아픔을 남의 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 1945 년에 투하된 원폭은 한국인에게 ‘해방’의 의미로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원폭이 ‘해방의 신호탄’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원폭에 희생된 재일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해방의 기쁨에 도취된 상황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1967 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 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변경)가 결성되었고,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를 위한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 발생 직후부터 전문병원을 세워 조사, 검진, 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72 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폭격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국인 수를 기초로 한국인 피해자 추정치를 발표할 때까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인 피폭자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일제강점 시기 한국의 비극적 역사에 대한 재조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 ‘강제연행’된 사람들입니다. 1939 년부터 일본이 ‘강제연행’을 시작하여 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 군대나 군수공장, 탄광, 건설현장 등에 내몰렸고, 특히 1944 년에는 히로시마 시내의 육군 부대나 군사시설, 군수공장에 수천 명의 한국인 청년이 징병되거나

징용되었습니다(市場淳子 2003). 당시 징집 대상자로 일본에 건너가 원폭 피해를 목도한 전(前)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광귀훈 씨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일본에 건너가 원폭을 맞은 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모두 일본의 전쟁수행 도구로서 강제로 연행돼간 사람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땅히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구호와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965 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보상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으로 바꾸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市場淳子 2003). 그리고 1967 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에서 모두 청산된 문제라며 상대하지 않았습니다(광귀훈 2003).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이 문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문을 발표한다거나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60 여 년 전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하고 원폭의 피해까지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냉대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한국 정부의 무관심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인 피폭자 문제는 단순히 피해 보상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못한 한국사의 한 비극적 단편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2014 년 한국의 국제학도들이 나가사키에 모여 와 이 도시의 아픔에 공감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전 겪었던 아픔이 떠올라서일 겁니다. 원폭 자료관에서

그들이 겪은 참상을 직접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은 수난의 모습들이 겹쳐 보였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겠지요.



▲ 평화기념상

맺으면서

2015 년은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 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70 년이 지났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아픔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이 도시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평화를 지향하는지 마음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곳의 꿈이 깨지지 않기를 그래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계 곳곳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나가사키를 떠났습니다. ■

참고문헌

곽귀훈. 2003. “단돈 1 원이라도 일본의 전쟁 책임 묻고 싶었다.”

<신동아> 8 월호, 118-131.

이치바 준코.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이제수 역. 서울: 역사비평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wonpok.or.kr>

(검색일: 2014. 6. 11).

BBC Documentary. 2008. “Countdown Hiroshima.” August 15.

Bernstein, Barton J. 1980. “Truman at Potsdam: His Secret Diary.”

Foreign Service Journal July/August, 29-35.

———. 1995. “The Atomic Bombings Reconsidered.”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35-152.

Byrnes, James F. 1947. “Cabinet Meeting and Togo's Meeting with the

Emperor, August 7-8, 1945.” *Speaking Frankl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Accessed June 9, 2014.

<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162/55a.pdf>.

Giovannitti, Len, and Fred Freed. 1965. *The Decision to Drop the Bomb*.

New York: Coward McCann.

- Hasegawa, Tsuyoshi. 2006.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ura, Akira, and Peter Kuznick. 2010. *Rethinking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Japanese and American Perspectives*. Kyoto: Horitsu Bunka sha.
- Malloy, Sean. L. 2008. *Atomic Tragedy: Henry L. Stimson and the Decision to use the Bomb against Japa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Sherwin, Martin J. 2003. *A World Destroyed: Hiroshima and its Legac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2014. "Memorandum from J. R. Oppenheimer to Brigadier General Farrell, May 11, 1945." Accessed June 9. <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162/5.pdf>.
-
- _____. 2014. "Assistant Secretary of War John J. McCloy to Colonel Stimson, June 29, 1945." Accessed June 9. <http://www2.gwu.edu/~nsarchiv/NSAEBB/NSAEBB162/25.pdf>.

역사 속의 한일관계와 앞으로의 방향 _한일교류박물관

김덕환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이번 답사 3일차 첫 답사지로 방문한 나고야성박물관(名護屋城博物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의 전진기지로 삼은 나고야 성터에 조성된 곳입니다. 1993년 사가현의 현립 박물관으로 개관된 이곳은 나고야 성터 유적 보존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열도와 한반도의 교류사’를 테마로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일교류박물관”으로 알려져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잡하고 어려웠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 박물관은 사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땀땀한 답사 일정상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없었던 우리에게도 역사 속의 한일관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노담화(Kono Statement) 검증과 야스쿠니 참배 논란, 독도 영유권 분쟁, 아베 정부의 우경화

등 한일 간의 관계는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얹혀 풀리지 않고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해 이른바 ‘식민사관’과 ‘친일’ 논란이 일면서 국내정치적으로도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아침 기대와 관심을 갖고 한일관계의 역사를 담은 나고야성 박물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역사 속의 한일관계

최근의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미국 및 중국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오늘날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현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서 현재 우리의 의식에 가장 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험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작업들 중 하나가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 서술이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각각 중앙집권적 힘을 갖춘 정치체가 들어선 이후, 양측의 정치체는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내부적 필요에 의해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보면 상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식적인 외교관계나 경제무역관계, 혹은 문화교류적 측면에서 한일관계사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두 나라가 사상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대해왔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관계가 단순히 국가 간의 군사안보적 혹은 경제적 이익 조정의 성격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오해가 부정적인 상황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에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각 지리적 단위에 존재해 왔던 정치적 역사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출현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시기의 정치적 행위자들은 앞선 정치체를 계승하는 나름의 서사를 구성하며 자신들의 역사와 대외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사를 만드는 과정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한국은 ‘한국’으로 일본은 ‘일본’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고야성 박물관 역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유물들을 배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사’가 전시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답사팀은 나고야성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선사시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관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시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 중후기 이후의 유물과 역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전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한일관계에서 조선 중후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는 것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임진왜란 시기부터 동아시아에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까지의 시기에 주목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전 조사과정에서 한일교류 박물관이 특별히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자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양국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온했으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통신사는 한일 교류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박물관에도 통신사의 행렬을 보여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선, 특히 후기의 외교사적 특징들을 되돌아볼 때,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현재에 이 시기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통신사 관련 유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신사는 과연 한일 양국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만을 상징하는 것일까? 임진왜란이라는 큰 충격을 뒤로 하고 두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교류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박물관의 유물들은 지나온 한일관계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역사 속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느끼게 해주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유물들 앞에 기록되어 있던 설명들도 대부분 간단한 사전적 정보만 적어 놓아서,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 통신사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 전시물

다행히 저는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던 중, 사전 준비과정에서 예전에 읽었던 신유한의 《해유록》을 떠올렸습니다. 《해유록》은 임진왜란 이후인 18세기 초반(1719년) 저자 신유한이 통신사 홍치중과 동행하여 일본에 다녀온 길의 감회를 적은 여행기입니다. 사실 통신사에 대해 현재 남아 있는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상당수가 정부에서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며 형식적인 성격을 띠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이 기록은 통신사로서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로서의 기록’인 동시에 조선인 신유한의 내면적인 의식 역시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화의식으로서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유한이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시기의 일본과 그 이후의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일본을 구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복합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한일 관계의 미묘한 속성을 잘 드러내고 시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해유록》을 매개로 하여, 조선 후기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중화 조선과 일본

신유한의 《해유록》을 통해서 조선후기의 한일관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당시 국제정치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박물관 안을 저희와 함께 걸으시면서 시대순에 따라 한일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고대부터 조선중기까지는 일본이 한국에 관심이 더 많았던 반면, 그 이후부터는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한국의 대일관은 전반적으로 일본을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긴 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이중적인 태도와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보여주는 전시관에서 교과서에서 본 반가사유상이나 금관 등의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에 도자기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의 수출품이었다면, 고대나 중세에는 불상 등의 문화 콘텐츠가 한반도가 가진 매력이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까지 한국의 대일관에 일본을 문화적으로 깔보고 멸시하는 성향이 나타났던 것의 밑바탕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구분 짓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중화사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찍이 중앙집권적인 통일 왕국을 세우고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중국은 시기에 따라 왕조 및 정치의 통합 정도는 달랐지만, 주변 국가들의 정치경제 및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각 지역의 정치체들은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세력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남북조의 분열기를 정리해가는 한편 명과의 조공관계 수립에 성공하는데, 이로써 국내에서 경쟁하는 다이묘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로마치(室町)막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나카오 히로시 2005, 19-21).

이렇듯 조공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건국 이전의 한반도 왕조들은 일본보다는 중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그들이 일본을 변방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 전기에 일본을 변방에 위치한 국가로 여기는 문화적인 멸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위에서

예로 든 아시카가 요시미즈의 경우를 다시 들여다 보면, 일본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여 ‘일본 국왕’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온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로 일관되게 칭하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카오 히로시 2005, 24).

그렇지만 당시 국제질서는 형식적인 조공책봉 질서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차원의 위계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명청시대에 해당하는 14~20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제’ 하에 장기적 평화를 누린 시기로 설명하는 데이비드 강(David Kang)의 《서양 이전의 동아시아》(East Asia Before the West)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과 일본은 물론이고 베트남, 류큐, 시암, 미얀마 등 다양한 정치체들과 조공형식의 교류를 하였는데, 이 중 중화문명에 동화된 정도가 더 컸던 조선과 베트남은 보다 빈번하게 조공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으로부터 얻는 이익도 더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여겨졌고, 교류의 양도 훨씬 적었습니다(Kang 2010, 59).

물론 중국문명 중심의 위계질서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임진왜란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품고 전쟁을 일으켜 조선과 명에 큰 피해를 끼쳤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당한 굴욕이 일본의 부강함에 대한 동경이나 존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을 내세우며 소중화 사상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의식은 문치주의의 조선이 무력의 일본보다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과 결합되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동시에 보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이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 있다고 여기는 동시에 일본이 중국 중심의 질서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띤다는 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Kang 2010, 60).

18세기는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가 세워져 있던 시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각자 독자적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명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중원의 패자가 된 청에 전통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만주족이 무력으로 정복하여 설립된 청이 아니라 조선이야말로 이전의 명이 지닌 것으로 여겨진 ‘중화’라는 문명 표준을 이어받았다는 소중화(小中華)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또한 중국과의 조공 책봉 관계를 드러내는 ‘일본국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 연호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국제관계를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나카오 히로시 2005, 84-85). 에도 막부는 기본적으로 쇄국을 유지하면서 일본인의 해외 왕래를 금하고, 외국인에게도 제한적 교역을 허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선, 류큐, 더 나아가 네덜란드 등 서방국가와도 안정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은 외교관계에서 조선 왕조와 일본의 에도 막부 간에 서로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통신사 외교 등을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각자의 시각에서 자국이 상대에 비해 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후기 조선의 일본관 형성과 《해유록》

신유한과 그의 저서 《해유록》은 한일관계의 역사에서 크게는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동시에 소중화 사상에 근거하여 일본을 대하던 시기에 나온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유한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조선 후기의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해유록》의 내용 중 비교적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중화질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 일본의 벚꽃과 한국의 무궁화

강하고 부유한 일본, 그러나.....

먼저 신유한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방문한 일본 각 지역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유한은 도쿠가와 막부가 내전을 최종적으로 종식하여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평정하고 질서를 수립하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가령 신유한은 “이 나라의 변화함과 풍부함, 지리의 이로움과 풍경의 기이함은 아마 천하에 드물 것이니 옛날 문헌에 기록된 인도 계빈국이나 파사국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신유한 2006, 146).”라고 하는 등 여러 지역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물질적 번영과 안정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의 병제를 소개하면서 군대의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검과 총이 우수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평소 군졸들이 훈련으로 단련되어 무슨 일을 만나거나 적을 보게 되면 성난 돼지처럼 등불에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내닫는다. 대장이 설사 무능하더라도 병사들의 결사적인 전투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군졸들이 비록 나약하더라도 싸움에는 용감하니, 이는 아무리 오랑캐의 습성이기는 해도 과연 병력을 강하게 하는 좋은 계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군대의 조련은 달마다 여섯 번에 걸쳐 한다. 바다에서는 해군 연습이 있고 육지에서는 보병 연습이 있는데, 다 포수를 으뜸으로 삼지만 갑비주의 기병과 살마주의 검사가 가장 용감하여 대적하기 어렵다고 한다(신유한 2006, 326).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유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신유한의 문장을 얻기 위해서 신유한을 찾아오는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문장을 지어주어야 해서 그가 이것을 매우 귀찮아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유한은 일본이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후진적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으로 인식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서술함으로써 조선이 일본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우세한 지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활이 더 우수하며 일본인들이 조선의 활을 보고 겁을 먹어 활시위를 당길 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신유한은 일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며 평가하기도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교적 문화의 규범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어도 당시 조선 엘리트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월의식에 기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호관계로의 험난한 전환, 대불사에서 생긴 일

이렇듯 기본적으로 일본에 비해 조선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신유한과 일행들은 일본인들을 대할 때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유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 중 하나인 대불사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양국 관계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 일정 중 일본의 관백이 사신 일행에게 교토 근처 대불사에 들어서 연회를 즐기게 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에 사신 일행들이 대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원당이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원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리는 연회에 절대 참석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관백의 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대마도주는 조선 통신사들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도주는 통신사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역사 문헌인 《일본연대기》에 따르면 대불사를 증진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해명을 듣고 계속 거절할 수 없던 사신 일행은 대불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임진왜란 이후 두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양측의 내재된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었음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조선은 여전히 과거 일본과의 전쟁이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화는 현재 식민시기에 대한 역사문제가 계속 이슈화 되면서 갈등 국면에 빠져버린 한일관계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이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지속적으로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일관계와는 달리, 대불사를 둘러싼 갈등은 그 결말이 아슬아슬하게 봉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하게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한 사건의 요약문보다는 인용문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신이 말하였다. “내가 결단코 절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의리로 보아 원수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관백이 듣는다면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굴종케 하여 의롭지 않은 길로 이끌 수 없거든 하물며 경윤이 다시 무슨 군소리를 한단 말인가? (중략) 만 리 파도를 헤치고 건너온 우리는 자기 한 몸을 지푸라기와 같이 보는 터이니 비록 여기서 십 년 동안 머물더라도 우리의 주장은 굽힐 수 없다.”

(중략) 대마도주가 봉행과 재판 등에게 그 책 《일본연대기》을 사신에게 드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서 비밀리 소장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대불사를 증견한 것은 원가광(源家光)이 바로 관백이 된 해이온데 풍신수길과 원 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귀국에서도 이미 아는 바입니다. 원 씨의 세상에서는 풍신수길의 자손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니 어찌 절을 지어 풍신수길을 받들 자가 있었으리까? 이 책을 보시면 원당이란 말이 그릇된 이야기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중략) 이리하여 세 사신이 상의하였는데 정사께서는, “전날 우리가 전하는 말만 믿고서는 이 절이 풍신수길의 절이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했다. 지금 이 나라의 문헌을 보아 이 절이 원 씨가 지은 것임을 확인한 이상 잠시 들러 접대를 받고 가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겠다. 또 이미 여러 왜인들에게, 우리가 결코 원수 놈의 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 절이 원 씨가 지은 것임을 안 뒤에야 간다는 것을 알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잊지 않는다는 뜻도 뚜렷하게 일본에 알리는 것이 된다(신유한 2006, 234-236).”

이 에피소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의 사신 일행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일본’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일본’을 구분하면서 조선을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이 실패로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권력이 교체된 이후 일본은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명과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합니다. 조선의 경우, 조선과의 중계무역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대마도의 영주를 통해 강화교섭을 시도하고, 일본은 전쟁에서 잡아왔던 조선인들을 송환하기도 합니다. 이에 조선은 1606년 조선국왕의 묘를 훼손한 범인을 붙잡아 조선으로 보내고 일본이 먼저 조선국왕에게 국서를 보내서 관계개선을 요청해야 한다는 강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에도 막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는데, 대마도 영주가 적극 개입하여 국서를 일부 위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조선이 관계를 회복하고 에도 쇼군의 국서에 회답한다는 의미의 ‘회답사’(回答使)를 보내게 됩니다(역사교과서연구회 2007, 162).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 회복은 조선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시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의 인식을 형성해 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태도를 보였던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해유록》에서는 일본이 조선과 자국간 국교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계속해서 일본을 ‘왜적’이나 ‘오랑캐’라고 칭하면서 모욕적으로 대하는 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본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유한은 조선이 일본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적대감이 큰 것이고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이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된다면 조선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힙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매우 잔인한 자로서 일본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가문이 몰살되었음을 밝히면서 조선이 일본을 보다 우호적으로 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요인이었는데, 조선과 일본은 이를 국가 간의 비극이라기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당시 조일 관계를 보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로도 지속됐던 중국 중심 문화권과 변방 지역을 살펴보는 동시에, 조선과 일본의 양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유한 이후의 한일관계

신유한 이후의 시기에는 세계 정치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해 간 서양문화권에 일본이 좀 더 일찍 적응함에 따라 이전까지의 한일관계가 역전되어 상반된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유한의 기록은 일본과의 형세가 역전되기 이전 시기, 즉 조선은 소중화 사상을, 일본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국제관계질서를 형성해 가던 시점인 조선 후기에 조선 엘리트들이 가졌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격변했던 동아시아의 정세를 암시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성이 크게 나타났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유록》을 통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관계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란 이후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라는 새로운 체제 하에 안정되어 가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러한 일본의 접근에 온전히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받아들였고 전쟁의 원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에게 돌리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해유록》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문화국으로 존중하고, 과거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의 일본을 철저히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관계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대안적인 관계를 모색했던 것과 같이, 한일 간 근현대사를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관계로 도모하기 위해 역사에 대한 공동의 서사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충하려다 보니 신유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 나고야성 박물관을 뒤로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감안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다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 보고자 하는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한일관계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 박물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익숙하게 배웠던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설명과 교과서에서 익히 봐 왔던 여러 유물들을 조금 낯선 일본에서 좀 더 현장감 있게 보고 왔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접했던 한일관계에 대한 서사보다 일본에서 보는 한일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유사한 전시를 한다면 어떻게 더 잘 구성할 수 있을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나고야성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

참고문헌

- 나카오 히로시. 2005. 《조선통신사 이야기》. 유종현 역. 파주: 한울.
신유한. 2006. 《해유록 조선 선비 일본을 만나다》. 김찬순 역. 파주: 보리.
역사교과서연구회. 2007. 《한일교류의 역사 선사부터 현대까지》. 서울: 해안.

Kang, David.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청일전쟁과 일본의 제국주의, 시모노세키에서 그 시작을 알리다 _일청강화기념관 I

이주원

고려대학교

들어가며

1895년 7월 25일 충남 아산에서 포성이 울리면서 두 개의 세계질서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기존 천하질서 하에 동아시아를 두려는 청나라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근대 국제질서를 받아들인 일본의 것이었습니다. 그 충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동원능력에서 앞서는 청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한 독일 언론의 예상을 비웃듯, 치열한 준비를 통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맞붙었던 일본 측의 승리로 흘러갔습니다(Paine 2003, 146). 바로 청일 간, 아니 동아시아의 역사를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한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압박하는 쪽이 일본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이 곳, 시모노세키 일청강화기념관(下関 日清講和記念館)에서 일본 천황으로부터 전권을 부여 받고 협상을 벌였던 사람들은 당시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외상인 무쓰 무네미쓰(陸奥

宗光)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출발이자 도전이었던 청일전쟁을 추적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탈이 강화되었던 19세기 말의 동아시아. 이를 국가적 위기이자 기회로 판단했던 당시 일본 지도자들의 세계관을 생각하며 이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당시 전쟁 발발 전 일본 지도자들이 어떠한 꿈을 꾸었기에 청일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전쟁으로 발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이홍장(李鴻章)과 이토 히로부미의 만남을 통해,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진정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삼국간섭으로 좌절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그 120년 후의 시모노세키에 여전히 울리고 있는 동아시아의 이야기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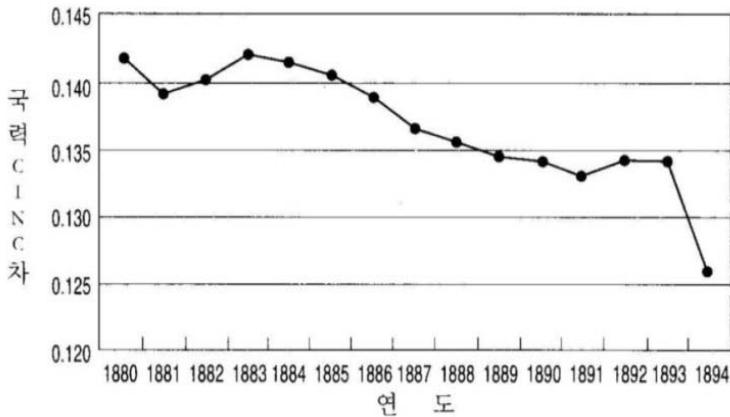
이토와 무쓰의 꿈,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무쓰 무네히쓰가 자신의 외무대신 시절을 회고한 《건건록》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청, 조선, 일본과 이를 둘러싼 열강 간의 여러 사건들을 스스로의 경험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본 입장에서 서술한 외교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무쓰 1993). 당시 일어난 외교 사건들을 실제로 담당한 최고 책임자가 남겨놓은 회고록이기 때문에 역사서로서나 연구문헌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쓰 무네히쓰는 이 책에서 청과 일본의 충돌의 내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옛 모습이 거의 바뀌어 신일본의 중흥을 이룩하였으므로 당시의 선진국인 유럽 각국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청국은 옛 모습 그대로며 내외의 형세에 따른 변혁을 꾀하지 못해, 한쪽은 서구문명을 대표하고 다른 한쪽은 동양의 옛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중국을 깨어나지 못한 일대 보수적인 국가라고 비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그들도 우리를 보고…… 모방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섬놈들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는지라…… 내면적인 논쟁의 근본은 분명 서구적 신문명과 동아적 구문명과의 충돌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무쓰 1993, 64-65).

청이 동아적 구문명, 일본이 서구적 신문명으로서 위치한다는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적 역량의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빠르게 서구적 근대화를 이룩한 반면, 청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과 청 사이의 국력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¹

[표 1] 청일전쟁 이전 청일간 국력차이²



¹ 실제로 청과 일본 간의 국력 차이는 일본과 청의 상대적 근대화 속도에 따라서 점점 좁혀지는 양상을 띄었다.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1860년에는 약 17퍼센트 차이를 보이다가 1880년에는 그 차이가 약 10퍼센트로 줄어들었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5년 후인 1900년에는 그 차이가 불과 3.8퍼센트에 그쳤다(Bairoch 1982, 296; 조한승 2006, 117).

² [표 1]은 청과 일본 사이의 종합국력지수(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CINC)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국력은 19세기 후반 급속도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의 국력은 서서히 증가하다 청일전쟁(1894-1895) 직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조한승 2006, 116-117).

둘째, ‘서구적 신문명’이 된다는 것은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 열강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 일본 근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85년 3월 16일자 <시사신보>(時事新報)에 쓴 탈아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는 인접국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의 부흥을 기할 인내”가 이미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은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고,” 중국과 조선에 대해서는 “서양인이 이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할 뿐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후지무라 1997, 30). 이 때 이미 후쿠자와는 일본의 중국과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입장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소위 ‘동아적 구문명’과 ‘서구적 신문명’의 충돌이 지정학적으로 발현된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습니다. 무쓰 무네미쓰가 <건건록>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청일 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은 바로 청한종속(淸韓宗屬)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청은 조선을 보호속국이라 하여 조선을 자신의 질서 하에 그대로 두고자 한 반면, 일본은 조선에서의 청의 영향력을 배척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일본의 전략은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고, 청국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청한 간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이 자국의 속국임을 표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국의 이러한 행동은 무쓰 무네미쓰가 소개하고 있는 조선의 공문에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국이나, 내치와 외교 면에서는 종래부터 대조선국의 국주에 의해 자주적으로 행하여져 왔다……대조선국이 중국의 속국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義)와 책임의 모든 것은 정해진 각 조항에 따라 반드시 행하여져 왔듯이…… (무쓰 1993, 136)

일본 및 구미열강과 조선 간의 공식적인 조약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듯 청국은 구미 각국에 조선이 청국의 속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게 하였습니다. 당시 청국과 조선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로 1885년에 일어났던 거문도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때에도 영국은 자국이 점령한 거문도를 곧바로 조선정부에 인도하지 않고, 먼저 청국에 인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렇듯 조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찾아온 그 기회가 바로 《건건록》제일 첫 머리에 등장하는 “동학당의 난,” 곧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청국에 요청한 지원군이 파병되자, 일본은 텐진조약(天津條約)을 명분으로 자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청군이 동시에 주둔하게 되자, 조선의 내정개혁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청한 종속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조선에 ‘보호속방’의 명분으로 파견된 청나라 군대는 한일 간 자주 국가로서의 권리를 유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청국 군대를 추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무쓰 1993, 139).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무쓰 무네미쓰는 청일전쟁의 근본원인이 ‘청한의 종속문제’에서 야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무쓰 1993, 139).

그렇다면 일본은 왜 조선에 세를 뺏는 꿈을 꾸었을까요? 1890년, 내각총리대신 야마가타(山縣有朋)는 그 해 12월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국가독립자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권선을 수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익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같은 해 3월에 집필한《외교정략론》(外交政略論)이란 글에서 그 이익선이 조선임을 밝히는데, 야마가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완성에 따라 그 이익선이 곧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金容九 1989, 364). 따라서 때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조선에 확실하게 일본의 기를 꽂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일본에 조선이란 자신의 이익선이자 곧 침략의 대상, 나아가 식민통치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청일전쟁을 통해 이루려는 일본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일본의 이익선인 조선반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에 여전히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청국을 몰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으로 청군이 조선반도에 파견되었고, 일본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청일전쟁》의 저자 후지무라는 ‘먼저 개전을 결정한 뒤에 개전의 구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후지무라 1997, 7). 하지만 일본이 그저 기회만을 기다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 육·해군의 증강

야마가타의《군비의견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육·해군 증강에 몰두한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형세는 장기간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략 10여년 후에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게 되면, 러시아는 틀림없이 몽고뿐만 아니라 청의 북경까지도 침략할 것이다. 군비 정돈에 대한 청의 노력은 1884년에서 1885년을 고비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까지의 향후 8-9년간 병비의 정돈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동양의 평화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취해야 할 것이다(최석완 1999, 215-222).

이 《군비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1893년의 일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약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때 이미 일본은 청에 대한 열강간의 영토 분할 경쟁에 직접 참여할 뜻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청으로 가는 길목인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배제하지 않고 군비를 확충해나갔던 것입니다.

[표 2]는 일본 육해군 병력 및 함정수가 얼마나 증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일전쟁 발발 10년 전부터 발발 당시까지 육해군 장병 수와 함정이 약 두 배 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은 육군과 해군의 총 군비 지출액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1881년에서 1891년 사이에 해군력이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당시 일본 제국 함대가 청 북양 함대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규율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와, 체계적인 군사 전술과 맞물려 여전히 청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서구 대다수 국가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게 됩니다.

[표 2] 일본 육해군 병력 및 함정 수의 변천³

연도	장병수			함정수	
	육군	해군	합계	단위 (척)	단위 (톤)
1869	-	-	-	4	3,416
1871	14,841	1,798	16,639	14	12,351
1872	17,901	2,641	20,542	14	12,351
1885	54,124	11,399	65,523	25	28,243
1894	123,000	15,091	138,091	55	62,866
1895	130,000	16,596	146,596	69	77,436

출처: 서민교 2006, 139

³ 후생성 귀환 원호국 조사통계, 서민교, “1894~5년 중일 전쟁기의 일본군과 조선,” 강성하 편저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서울: 리북, 2006), 139.

[표 3] 일본 군사비 (육군) 지출액 (단위: 엔) ⁴

육군 지출액			
연도	일반지출	특별지출	합계
1878	6,409,005	220,739	6,629,744
1881	8,179,712	559,060	8,738,772
1884	10,764,593	771,190	11,535,783
1887	11,842,619	565,917	12,408,536
해군지출액 (일반지출 및 특별지출 합계)			
1871	886,856		
1881	3,108,516		
1891	9,501,692		

출처: Norman 1940, 132 (조한승 2006, 118 재인용)

[표 4] 일본 함대와 청 북양 함대의 비교 (1894, 9월) ⁵

	일본 제국 해군	청 북양함대
주력함 (Capital Ships)	4	2
무장 순양함 (Armed Cruisers)	1	0
방호 순양함 (Protected Cruisers)	7	3
비방호 순양함 (Unprotected Cruisers)	12	5
포함 (Gunboats)	7	10
어뢰정 (Torpedo Boats)	26	5-16(Min-Max)

출처: David Evans and Mark R. Peattie 1997, 39

⁴ E. Herbert Norman, Japan's Emergence as a Modern State: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of the Meiji Period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0), p.132. 조한승 (2006, 118) 재인용

⁵ David C. Evans and Mark R. Peattie. 1997.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39.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의 대결: 그 긴장감을 함께하다

아산에서의 포성은 평양에서의 총성을 거쳐 마침내 요동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가적 위기를 맞은 청국은 정전을 위해 일본과 대화를 청합니다. 쇠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청에 대한 일본의 압도적 승리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크나큰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무쓰 무네미쓰는 당시 일본 국민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청국으로부터 할양 받는 것은 오로지 커야 하고, 우리 제국의 영광이 널리 널리 선양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대개 일반적인 정서였다(무쓰 1993, 223).”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쓰 무네미쓰와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협의 하에 청일전쟁을 통해 얻어야 할 필수적인 3개의 요구사항을 마련해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쓰 무네미쓰가 천황에게 봉정한 3개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약안은 대체로 3개 안으로 한다. 제1안으로는 이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주 원인이었던 조선국의 독립을 확인시키는 일을 규정했고, 제2안으로는 우리 나라가 전승의 결과로서 청국으로부터 양도받을 할양지와 배상금 등 두 건을 규정했다. 제3안으로는 일청 양국의 교제 상 취해야 할 우리 나라의 이익과 특권을 확정하기 위해, 장래 우리 나라와 청국의 관계를 구미 각국과 청국과의 관계와 같이 동등하게 하고, …… 신개항장을 설치하고……우리 나라가 청국에서의 통상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항해에 관한 제권리를 규정했다(무쓰 1993, 227).

이 중 앞서 밝혔던 일본의 꿈을 고려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안건은 제1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안을 통해서 일본은 청한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축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제1안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꼭 얻고자 했던 것이었고 이는 포기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제2안과 제3안의 정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국내의 분위기는 전승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으며 군부는 더 많은 배상금과 영토를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가바야마(樺山) 군령 부장은 1895년 1월에 제출한“적지 영유에 관한 의견”에서 “배상 이외에 금주반도, 산동반도, 팽호도, 대만, 주산열도의 일부를 영유하고, 또한 조선의 부산, 절영도, 거제도, 목포를 영구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고, 대장상 마쓰가타 마사요시(松方正義)는 10억 량, 아오키(青木) 주독 공사는 1억 파운드의 배상을 요구하라고 진언했습니다(후지무라 1997, 192). 이러한 상황에서 무쓰 무네미쓰 외상은 국내의 요구를 ‘앞으로만 나아가고 멈출 줄을 모르는 형세’로,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을 ‘중용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 둘 사이의 화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무쓰 1993, 225).

다만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일사천리로 받아들여지리란 기대는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 모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토 히로부미는 “청국사절과의 담판의 성사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강화의 조건을 명언하게 되면 제3국의 말참견과 간섭을 안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아니 거의 이들의 간섭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천황에게 고하고 있으며, 무쓰 무네히쓰 역시 “우리 정부가 청국에 요구할 조건을 공고하거나 암시를 주어 구미 각국으로 하여금 미리 내면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묵시를 얻어내어 후일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방어할 수 있는 방침”이 좋은 계책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무쓰 1993, 230). 분명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히쓰 모두 청국과의 협상 자체를 걱정하기보다는 구미 열강들의 개입을 더욱 걱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는 저희가 방문한 시모노세키로 이동합니다. 민선누나와 제가 일청강화기념관에서 시연했던 짧은 단막극은 바로 이 순간을 다룬 것입니다. 시모노세키 담판에서 일본 측은 줄곧 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에 이홍장은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는데, 무쓰 무네히쓰는 이를 이홍장이 “거듭해서 일본의 개혁과 발전을 흠모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총리의 공적을 찬미했고, 또 동서양의 형세를 논하면서 형제처럼 협력하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무쓰1993, 252). 반면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전쟁에서의 유리한 전세를 바탕으로 강하게 이홍장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때 휴전조건으로 텐진점령을 내건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Li and Hirobumi 1895, Tientsin Press). 저는 베이징의 인후(咽喉)라

고 볼 수 있는 텐진을 굳이 점령하겠다는 이토 히로부미의 속마음을 강한 어조로 표현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를 거둔 일국의 최고 지도자는 참으로 위풍당당해 질 수 있나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신보다 18살이나 많은 이홍장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압박했던 그 자신감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3월 24일 이홍장이 한 폭도의 단충에 의해 저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저희 단막극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면을 쓰고 폭도 역을 맡아 이홍장을 향해 권총을 쏘고, 민선 누나는 상처 부분에 대일밴드를 직접 붙이는 등 상세히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영선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밝게 웃어주셔서 더욱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저격사건을 계기로 이토 히로부미와 이홍장 사이의 협상은 요동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일본 외교문서를 보면 일본 측이 구미 대사들을 통해 서구 열강들의 반응을 살피고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오키 공사는 “이홍장에 대한 살해 시도가 사실이라면, 유럽이 일본의 피상적인 문명을 경멸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라고 무쓰 무네미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일본외무성 1895). 이렇듯 세계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일본은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덮기 위해서 이홍장의 애초의 요구대로 휴전 협상을 체결해 주는 것 외에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휴전 협상 체결 이후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다시 강화조약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휴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는 했지만, 이 때도 이토 히로부미의 협상 태도는 여전히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세의 우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압박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투상의 조치나 그에 따른 결과나 모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일본국이 다행히 승낙할 수 있는 강화조건은 후일에도 언젠가는 승낙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임을 깊이 통찰하기 바란다(무쓰 1993, 285).

이토 히로부미는 이와 같이 이홍장을 압박하면서 4월 10일에 벌어진 제5차 시모노세키 담판에서 3일 안에 승낙 여부를 밝히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렇듯 압도적인 전세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측에 이홍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측 원안에서 배상금과 일부 개항 항구를 축소시킨 것 이외에는 거의 변동 없이 강화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쓰 무네미쓰가 예상했듯이 제2항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까

지 일본은 자신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 즉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은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표5] 청일간 협상내용⁶

쟁점	일본 원안 (4월 1일)	청국 수정안 (4월 9일)	일본 재수정안 (4월 10일)
조선 독립	청국만 확인	청일 양국이 확인	일본 원안대로
영토 할양	봉천성 남부 지역 타이완 전도와 그 부속 도서 및 평호열도	봉천성 내의 안동 현, 관전현, 봉황청, 수암주와 평호열도 (타이완 제외)	타이완과 평호 열도는 원안대 로, 봉천성 남부 지역 축소
배상금	3억 량을 5년간	1억 량과 무이자	2 억 량
통상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과 동등한 신조약 체결 • 일본 최혜국 대우 • 7개 도시 추가 개방 • 일본 증기선 항로 확장 • 수입세 경감 • 청국에서의 제조업 종사 허용 등 각종 특권 제공 	청국과 서구열강들과의 조약에 기초해 신조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 양국이 서로 최혜국 대우	원안대로 (단, 개항 도시 4개 항으로 축소, 일본 증기선 항로 축소)
조약 이행담보	일본군의 봉천부 및 웨이하이웨이 일시 점령	웨이하이웨이 지역 만 일시 점령	청국 수정안 수용
분쟁해결	없음	제3국에 중재 의뢰	추가 불요

⁶ 조진구. 2006.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의 체결 과정, 결과와 그 의미,” 강성학 편저《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서울: 리북. 383.

그러나 일본이 요동반도를 할양 받은 것은 청국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려는 구미 열강들, 특히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가 사전에 우려했던 대로 4월 20일 러시아 공사 의 구술 각서가 일본 측에 전달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황제폐하의 정부는 일본국에서 청국에 요구한 강화조건을 열람하시고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늘 청국정부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장래 극동의 영구한 평화에 대해 장애를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여기에서 일본 정부에게 권고하건대 요동반도를 영유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포기하기 바란다(무쓰 1993, 296).

이렇듯 러시아 주도 하에 프랑스, 독일이 가담한 세 나라가 일본의 전후 처리에 제동을 걸게 되는데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무쓰 무네미쓰는 “우리 정부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탄 듯한 세력이므로,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고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 안다.”라며 간섭에 대응할 태세를 보였습니다(무쓰 1993, 297). 그러나 곧 이 삼국간섭이 단순한 외교적 담론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한 물리적 압박이 동반된 것을 알게 됩니다. 무쓰 무네미쓰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이 방면의 모든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

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 무엇인가 일어날 듯한 조짐을 감지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후술하고 있습니다(무쓰 1993, 297).

이 때 무쓰 무네미쓰의 심경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당시 협상 결과는 일본 육해군의 승리와 정부의 고심이 어우러져 얻어낸 외교적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가령 당국자인 우리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가슴 속 깊이 여미어오는 고통을 참고 장래의 난국을 피하려고 일보양보하는 것은 각오할 수는 있었다지만 이러한 소식이 한번 표면화되면 우리 육해군은 얼마나 격동할 것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한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라며 이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무쓰 1993, 298).

일본은 이와 같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장이라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삼국에 대응해서 일본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최대한 조건을 완화해보려는 몇 차례의 외교적 노력의 실패 끝에 “일본 제국정부는 러·독·프 삼국 정부의 우의 있는 충고에 따라 봉천반도를 영구히 소유함을 포기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각서를 각 나라에 제출하게 됩니다(무쓰 1993, 314).

시모노세키, 일본 제국주의의 명운(命運)을 함께하다

이제 어느덧 시모노세키를 떠날 때입니다. 기념관에서 나와 다시 버스로 돌아가는 길 역시 바다를 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 바다는 조금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일흔이 넘는 이홍장이 먼 바닷길을 건너 시모노세키의 조그만 식당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이 함께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화물선이 지나다니지만, 그때는 여기서 일본 해군 함정들이 왕래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적국 해군 앞에서도 초연하고자 했던 이홍장과, 철저한 계산을 통해 그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던 이토 히로부미. 시모노세키는 저에게 그 치열한 대결의 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바닷가로 다가왔습니다.

짧지만 청일전쟁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는 후지무라는 그의 저서 《청일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청국을 압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전쟁이었다.”라고 후술하고 있습니다(후지무라 1997, 8). 이는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청군에 백전백승을 거두었음에도, 정작 그 결과가 삼국간섭으로 이어져 일본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조선 내정 개혁, 즉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식민지화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에 조선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해 결과적으로는 10년의 준비가 무색하게 천진조약, 혹은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의 일보 후퇴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 보 전진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최소한 “메이지 유신 이래 국민적 과제였던 독립 달성을 아시아 제 민족과의 전쟁과 억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룩해”냈습니다(후지무라 1997,

277).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점은 바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를 펼 능력을 갖추어 서구 열강에 필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양 열강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를 획득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내의 자부심과도 연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일본을 세계적 생활 세계에 끌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청일전쟁 이후를 제국적 자각의 시기로 규정”하였습니다(후지무라 1997, 277). 종합해 보면, 청일전쟁은 일본의 국가적 단합을 결속시키고, 서구 열강은 물론 자국민에게 ‘제국주의 일본’을 각인시키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시모노세키 바닷가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일청강화기념관은 이렇듯 역설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명운을 온전히 담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10,000 평방미터 면적에 달하는 기념관에 군함 모형을 전시하는 등 규모를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강화 회의 때 사용된 비품과 이토 히로부미의 유물들이 소략하게 남아있는 일본 기념관의 모습은 어쩌면 서로의 상반된 역사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⁷ 게다가 당시 협상장이었던 춘판로(春帆樓)가 1945년에 미군 폭격에 불타버렸던 것까지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 곳은 일본 제국주의와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곳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⁸ 20세기의 여명에서 일본을 이끈 외무장관 무쓰 무네미쓰가 그의 회고록에 붙였

⁷ 일청강화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d.go.jp/msdf/oz-atg/meisho/simonoseki/nissinn/nissinn.htm>

⁸ 춘판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hunpanro.com/about/history.html>

던 건건(蹇蹇) 즉, ‘비틀대며 걷는 모양새’라 함은 어쩌면 시모노세키와 일본 제국주의의 이야기를 이미 예리하게 짚어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 비틀거렸던 동아시아의 이야기를 속삭이던 공간, 제가 다녀온 일청강화기념관이었습니다. ■

참고문헌

- 강성학 편저. 2006.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서울: 리북.
- 김용구. 1989. 《세계외교사 / 상: 빈회의에서 1차대전 전야까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무쓰 무네타쓰. 1993. 《건건록》. 김승일 역. 서울: 범우사.
- 서민교. 2006. “1894~5년 중일전쟁기의 일본군과 조선”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강성학 편, 137-173. 서울: 리북.
- 일본외무성. 1895. “일본 외교 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제28권 제1책
<http://www.mofa.go.jp/mofaj/annai/honsho/shiryo/archives/28-1.html> (검색일: 2014. 10.7.).
- 일청강화기념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d.go.jp/msdf/oz-atg/meisho/simonoseki/nissinn/nissinn.htm> (검색일: 2015.1.19).
- 조진구. 2006.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의 체결 과정, 결과와 그 의미.”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강성학 편, 365-392. 서울: 리북.

중국 산둥성 관광국 공식 웹사이트.

http://www.sdta.com.tw/sightseeing/sightseeing_citycontent_b.aspx?scenic_spots_name_db_id=3181 (검색일: 2015.1.19).

조한승. 2006. “상대적 국력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일전쟁 (1894~95).”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강성학 편, 91-136. 서울: 리북.

최석완. 1999. “일본정부의 동아시아질서 재편정책과 청일전쟁.” <동양사학연구> 65권: 213-48.

춘판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hunpanro.com/about/history.html> (검색일: 2015.1.18).

Evans, David., and Mark Peattie. 1997.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Li, Hongzhang and Hirobumi Ito 1895. *Verbal Discussions During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Chinese Plenipotentiary Viceroy Li Hung-chang and the Japanese Plenipotentiary Count Ito and Viscount Mutsu at Shimonoseki, Japan. March- April 1895*. Tientsin: Tientsin Press. (Reprinted by "The Peking and Tientsin Times").

Paine, S.C.M. 2003.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중국 천하질서의 마지막을 가다 _청일강화기념관 II

구민선

연세대학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다

2014년 6월 28일 시모노세키 가라토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하차하는 순간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만치 멀리 시모노세키 조약(Shimonoseki Treaty, 下関条約, 马关条约) 내용을 협상하고 체결한 장소인 춘판로(Shunpanro, 春帆楼)가 보였습니다. 가라토 시장에서 초밥을 많이 구매한 덕에 회덮밥 등을 서비스로 받아서 시장 밖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초밥과 복어튀김, 복어 고로케로 배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초밥을 먹으며 바라본 해협이 아마 청국의 전권대신인 리홍장(李鴻章)이 회담 시 바라보았던 해협이었을 것입니다. 2014년은 청일전쟁(1894-1895)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라서 청일전쟁에 대한 관심은 특히 중국에서 매우 뜨겁습니다. 첫 대외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당시 시모노세키 조약 협상 때는 모든 일본 국민의 관심을 받았으나 중국과는 달리 오늘날 일본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초밥으로 배를 채운 뒤 10분 남짓한 거리를 걸어서 춘판로와 청일강화기념관(淸日講和記念館)에 도착했습니다. 춘판로와 청일강화기념관의 입구는 예상했던 것보다 단순했으며, 춘판로 입구에는 청일강화기념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놀랐습니다.



▲ 춘판로 입구

춘판로와 청일강화기념관의 배경

본래 조약 협상과 체결은 춘판로라는 여관에서 이루어졌고 청일강화기념관은 시모노세키 시 정부가 1935년과 1937년 사이에 건립했으며, 현재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1945년 미군 공습으로 인해

소실된 춘판로는 1955년이 되어서야 복구되었고 지금의 콘크리트로 건설된 춘판로는 1985년에 복구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청강화기념관은 1945년 미군 공습에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 조약과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가진 국제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면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와 강화조약을 기념하기에는 기념관의 규모가 작고 수수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한창 중국에서 세력을 팽창하는 시기에 건립했는데도 일본의 국제적인 야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판로와 기념관 건물 사이에는 일본 전권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당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일본 외무상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의 동상이 나란히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을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판로라는 음식점은 청일 강화조약 장소로 유명해졌지만 현재 고급 복 요리 음식점과 여관으로도 일본에서 잘 알려진 체인 브랜드입니다.

춘판로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춘판로는 원래 월파로(月波樓)라는 진료소로 사용되었으며, 안과 의사이자 건물 주인인 후지노 겐야(藤野玄洋)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이 진료소를 여관과 음식점으로 바꾸었습니다. 1887년 당시 일본에서는 복요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 시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 복요리를 집에서만 먹어 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1887년 복어 요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1888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복요리 금지령을 해제하면서 춘판로는 일본 최초의 복요리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와 같은 일본의 유명인사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宗澤亞

2012, 405). 시모노세키 시는 당시 일본 황상이 있었던 히로시마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개인적인 선호도 때문에 춘판로를 회담 장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춘판로를 회담 장소로 선택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춘판로는 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춘판로는 ‘봄 바다를 향해하다’라는 뜻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지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단골 음식점인 춘판로에서 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승자로서의 여유와 일본이 청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답사 당시 금전적인 여유만 있었다면 춘판로에서 하루 묵고 복요리를 먹으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청강화기념관과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약의 배경과 과정을 잘 아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청일전쟁과 강화회담의 흔적은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강화회담의 배경과 과정을 사전 공부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1차 자료인 회담 기록과 2차 자료인 역사 서적을 통해 춘판로에서 있었던 강화회담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1894 년 청일전쟁: 리홍장 한 사람의 전쟁인가?

사실 ‘청일전쟁’이라는 이름은 매우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쟁이 갑오(甲午)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갑오전쟁’ 혹은 ‘중일(中日)

갑오전쟁’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27-28년 전쟁’ 혹은 ‘일청(日淸)전쟁’으로 부릅니다. 또 구미권에서는 ‘First Sino-Japanese War’라고 불립니다(宗澤亞 2012, 2). 그러나 여기서 청일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 중립적인 단어이며, 둘째 당시 청나라를 오늘날의 중국과 구분하기 위함이며, 셋째 일본 대 청나라 국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과 청국 정부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청일전쟁을 리홍장 한 명이 한 국가를 상대로 치른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이 리홍장과 협상을 원했던 이유도 리홍장이 실권자이기도 했지만 청국이 일본에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리홍장이 지휘했던 북양함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언론도 청국의 애국심 부재를 지적하면서 청일전쟁을 리홍장 개인의 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Paine 2005, 136). 사실 당시 청나라의 군사는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양 대신이었던 리홍장은 청일전쟁 발발 전 동양에서 가장 강력하다던 북양함대를 만들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훈련과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청일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청일전쟁의 시작부터 시모노세키 조약 조인 때까지 일본이 상대했던 것은 청나라 정부가 아닌 리홍장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리홍장을 통해 청나라에 많은 요구를 했고, 청일전쟁 전후로 청에서 영향력이 쇠퇴일로에 있던 리홍장에게 시모노세키 강화회담은 매우 어려운 임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리홍장의 부담감은 이토 히로부미와의 회담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재현하다

저는 이번 규슈 답사에서 이주원 군과 일청강화기념관에 대한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 규슈에 와서야 일청강화기념관에서 ‘퍼포먼스’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전 조사에서 일청강화기념관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알게 되어 설명만 하기에는 부족하고 지루할 것 같았고, 둘째, 제가 찾아낸 1차 자료가 바로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시모노세키 조약 기록이었기 때문에 연극이 청과 일본의 대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나라 측, 즉 청나라 전권대신인 리홍장 역을 맡았고 이주원 군은 이토 히로부미의 역을 맡아 시모노세키 담판에서 일본과 청국 간 협상의 난제를 선별하여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신경전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답사 마지막 날인지라 시간이 많이 모자라 몇 가지 이슈만 골라서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밖에 없었고, 학기 말 직후에 규슈로 떠났기 때문에 대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일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리홍장과 청나라의 입장에서 회담 과정과 내용을 생각해보니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답사 가기 전 회담 기록을 다시 훑어보니 리홍장이 회담 시 느꼈을 답답함과 절망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청나라를 위한 협상 외에도 본인의 대내적 평판을 생각하며 끝까지 협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는 청이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강화 회담에서 협상을 해야 했던 입장이었는데 그의 절실함은 회담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청나라는 서양 문명을 수용하지 않은 탓에 청일전쟁에서 근대화를 거친 일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청일전쟁은 두 국가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두 문명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19세기 말 청나라는 일본에 비해 매우 낙후된 사회였기 때문에 군사, 정치, 사회, 국민성 등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약하거나 열등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청나라의 패배를 예상했을 리홍장은 패배국의 대표로서 일본과 협상 혹은 흥정을 하기 보다는 거의 구결에 가까운 답판을 벌여야 했고, 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리홍장의 입장을 생각하며 일청강화기념관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회담 당시 리홍장의 난처한 입장과 답답함을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모노세키 강화회담

청일전쟁과 일청강화기념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일 간 강화회담 과정과 내용에 대한 숙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담 초기부터 청의 협상 대표는 리홍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청나라 정부는 리홍장을 보냈고, 일본은 그제서야 만족해 하며 회담에 임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난 1894년 9월부터 청의 군사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일본군이 요동반도에 상륙하기 시작

하면서 휴전협상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조정으로 시작된 시모노세키 강화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조인되는 1895년 4월 17일까지 사료를 보면 어떤 자료엔 세 차례의 협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자료엔 두 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시모노세키 강화 회담 과정에서도 청국과 일본 간 이견이 컸으며, 협상 기간이 길어진 것도 일본의 협상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협상을 최대한 끌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일본이 청국을 계속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둘째, 일본이 점령하는 청국 영토가 확장되면 결국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후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국이나 다른 국가에 강화조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것은 회담 진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들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토 히로부미는 자칫 강화조건이 외부로 유출되면 서구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이미 예측한 것이죠.

1차 회의: 실패한 히로시마에서의 첫 회담

1894년 11월 26일 리홍장은 본인의 지인인 텐진 관세무사인 구스타브 더트링(Gustav Detring)에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친필 서신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청국 정부의 대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담을 거부했고(宗泽亚 2012, 114) 이를 뒤에 더트링은 히로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Paine 2005, 250).

2차 회의: 히로시마에서의 회담 시도가 또 물거품이 되다

1차 회담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청국은 산둥반도 북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인 웨이하이웨이(威海卫)와 청나라 베이양함대의 근거지였으나 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점령하였던 하이청(海城)에서 패배했습니다. 청국 정부는 미국의 권유에 따라 상서함 총리아문대신 호부 좌시랑 장음환과 두품정대병부 우시랑서 호남순무 소우렴 두 명을 전권위원회에 임명하고 일본국에 파견할 것을 일본에 통보를 했습니다(무쓰 1993, 220).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가 일본의 특명 전권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중국이 끝까지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아직 일본이 청나라와 비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Paine, 2005).

결국 1895년 2월 1일 장음환과 소우렴이 청국의 전권 대신으로 히로시마에 도착했는데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은 또 ‘전권’(全权)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음환과 소우렴이 일본 측에 넘긴 문서를 일본은 전권위임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무쓰 1993, 234) 이들에게 협상과 결정을 내릴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화담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무쓰 1993, 235). 그러나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청국 문서에 있는 ‘재결’(裁決)이라는 단어는 일본 정부가 중요시하는 ‘전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戚其章, 1990, 449). 결국 그 다음날인 2월 2일 일본은 청국 대표들은 전권이 없다는 이유로 장음환에게 일방적으로 회담이 중지됐음을 통보합니다. 청국의 수행원들이 회담장을 떠나려고 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수행원 중에 1885년 텐진

에서 봤던 오정방(伍廷芳)을 불러 리홍장에게 전신을 부탁했고 일본 정부가 전권위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무쓰, 1993, 240-241). 즉 일본은 답판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과 답판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권대신에 대한 일본의 집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의 협상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둘은 처음부터 협상 책략을 구상하면서 협상 기간을 최대한 끄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戚其章 1990, 448). 이렇게 히로시마에서의 답판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결과 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회담을 지체할수록 일본군이 우세해져 청나라 측에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번이나 결렬된 히로시마에서의 강화회담은 일본에게만 이득이 되었습니다.

3차 회의: 리홍장이 청나라 전권대신으로 시모노세키에 가다

1895년 2월 12일 장음환과 소우렴은 청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가사키를 떠났는데 마침 같은 날 웨이하이가 일본에 의해 장악되고 북양 함대는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두 차례 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청군이 연속으로 패배하자, 청국 정부는 2월 19일 미국공사를 통해 리홍장을 두등전권대신에 임명하고 일체의 전권을 부여한다고 일본에 통지했습니다(宗澤亞 2012, 116; 무쓰 1993, 248). 이에 따라 회담 장소로 시모노세키가 선정되었고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7회의 답판이 벌어졌습니다.

청일전쟁의 본래 목적이었던 조선 독립에 대해 두 나라는 아무 이견이 없었지만, 회담 내용을 보면 그 외의 문제들로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중 가장 부각된 난제 몇 가지를 꼽자면 휴전조약, 배상금 및 이자문제, 영토 할양, 그리고 비준 시기와 교환 장소 등이 있습니다(Li and Ito 1895).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실제 담판 사료를 보면 협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은 리홍장의 요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시아의 비스마르크와 비견되었던 리홍장이 춘판로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마주앉아 배상금 삭감을 구걸했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현재 중국에게 청일전쟁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리홍장의 권력과 실세를 잘 알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는 리홍장이 청나라 전권대신으로 시모노세키에 왔음에도 담판 첫날부터 리홍장이 전권대신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권 위임에 집착한 일본을 청은 달갑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본은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쓰 무네미쓰 외상의 기록에 따르면, 청국이 적합하지 않은 사절을 파견한 것은 청이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들도 청나라가 처음에 파견했던 독일인을 보고 청국 정부의 진실성이 결여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Paine 2005, 250). 종합적으로 볼 때 청나라에 대한 일본의 불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홍장과 이토 히로부미의 회담은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역으로 인한 오해 혹은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

함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영어로 회답을 하면 더 ‘명백’하다고(“It is clearer in English”)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오해 방지를 위해 일문 및 중문 외에도 영문으로 최종 조약서를 작성했습니다(Li and Ito 1895, ii).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895년 3월 19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이 홍장은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휴전조약 위주로 진행되었던 시모노세키 담판의 첫 세 회답에서는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누차 리홍장의 휴전 요구를 거절했고 휴전을 고려하기는커녕, 회답 중에 당시 청국의 관할 하에 있던 따꾸(大沽)와 텐진(天津), 산하이관(山海關)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청국 군대의 군수품 및 병기를 몰수하고 심지어 청국이 휴전 기간 중 일본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무쓰 1993, 253). 그러자 리홍장은 이 세 곳이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조건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강화에 대한 청국의 성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서 거절했습니다(Li and Ito 1895, 6). 이렇게 세 번째 회의까지 휴전조약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리홍장은 휴전 제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Li and Ito 1895, 9-11).

청국은 휴전조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나 회담 셋째 날에 하늘은 청나라의 편을 들어준 듯 했습니다. 3월 24일, 회담이 끝난 뒤 리홍장이 숙소로 돌아가던 중 고야마 도요타로라는 일본 청년이 리홍장의 암살을 기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청년의 암살 시도는 당시 일본 사회

내에 만연해 있던 전승으로 인한 광희(狂喜)와(무쓰 1993, 261) 일본 내 극단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宗澤亜 2012, 396). 이들 극단주의 집단들은 일본이 아직 청국과 강화 협상을 통해 일본이 이득을 충분히 얻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리홍장을 암살하는 것이 현재 강화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기고 실행한 것입니다(宗澤亜 2012, 396). 다행히도 고야마 도요타로가 리홍장의 가마를 향해 쏜 총알이 리홍장의 왼쪽 눈 바로 아래 볼에 박혀서 리홍장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알을 빼기 위해 수술을 하면 회복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리홍장은 총알을 제거하지 않기로 했고 남은 기간 동안 얼굴에 총알이 박힌 채 담판을 벌여야 했습니다(Paine 2005, 262).



◀ 일청강화기념관 내부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당시 회담장을 복원한
모습

암살 시도가 일어난 뒤 리홍장에 대한 일본의 대접은 180도 바뀝니다. 심지어 일본의 황후는 황가의 붕대를 하사하기까지 했으며 일본 전국에서 리홍장의 숙소를 방문해 위로했습니다(무쓰 1993, 259-260). 더군다나 일본 정부는 구미 국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청국이 암살 시도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시키고 서구 국가들의

간섭이나 중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무쓰 1993, 261). 따라서 일본 정부는 긴 고심 끝에 3월 27일 청나라와 21일간 휴전을 승인했습니다(무쓰 1993, 264). 결국 리홍장이 시모노세키에서 흘린 피가 청나라에겐 가장 값진 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리홍장이 4월 1일 네 번째 회담을 위해 담판 장소로 복귀했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회담에서는 주로 배상금 문제를 다루었는데, 리홍장은 일본이 요구한 2억 냥이 지나치게 많으며 구걸하듯이 배상금을 삭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Li and Ito 1895, 12-25). 그러나 일곱 번째 협상까지 버틴 리홍장은 결국 어쩔 수 없이 2억 냥의 배상금과 대만 및 요동반도 할양이 포함된 일본의 강화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회담장에서 보이는 간몬해협에 있는 일본 해군함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홍장 길

기념관에서 나오면 춘판로 입구 왼쪽에 매우 좁은 골목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리홍장 길’(李鴻章道)입니다. 이곳은 협상 당시 일본 정부가 리홍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그의 숙소였던 인접사(仁接寺)에서 3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던 춘판로 사이에 만든 좁은 골목입니다(宗澤亞 2012, 404). 이 골목은 리홍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

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시모노세키 시에서 이 골목을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리홍장의 인기가 그렇게 대단해서 지정됐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한때 동양의 비스마르크, 즉 청나라의 리홍장이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협상기간 동안 밟았던 일본 땅을 표시함으로써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세우고 싶었던 것일까요?



▲ 리홍장 길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일청강화기념관을 둘러본 후 ‘리홍장 길’을 따라 그가 묵었던 인접사를 찾아 보았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추후 알아보니 생각보다 춘판로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유럽의 견제: 삼국간섭과 요동반도의 반환

일청강화기념관의 작은 규모와 수수한 내부는 아마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 있었던 삼국간섭의 영향을 받아서일 겁니다.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은 승리의 희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 체결되자 독일 정부는 청나라의 영토 할양이 독일의 통상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군함을 극동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또 러시아는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일본의 영토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러시아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세 서구 열강들은 4월 23일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독·불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자 일본은 5월 4일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영구반환 하였습니다. 이런 ‘삼국간섭’이 보여주듯이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는 세력 균형이 작동했는데, 특히 독일은 인종 차별 차원에서 일본을 제지했습니다. 즉, 독일은 황인종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을 늘 주시하며 억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구 열강들은 황인종의 나라가 백인종이 아시아에서 얻는 이득을 빼앗

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宗澤亞 2012, 125). 이렇게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청나라의 천하질서가 붕괴되면서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 정치 질서에 편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0년 전 오늘 그리고 미래의 동아시아

1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청강화기념관을 답사하면서 배웠습니다. 일본 경제 침체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중국과 일본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면, 1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일본 간의 불신(不信)일 것입니다. 현재 이런 서로간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모노세키 담판에서 일본은 청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었는데 이런 불신은 오늘날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매우 도드라져 보입니다. 120년 전에 일본은 청이 종전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다면 오늘날 중국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국가로 부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도 강대국인 중국이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 해소가 오늘날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또한 120년 전의 청일전쟁은 오늘날 중국과 일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보는 1894-1895년 청일전쟁은 중국식 천하질서의 해체를 의미하며 현실주의의 세력전이 이론을 대표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중심이었던 천하질서가 해체되면서 일본이 신흥 지역 패권 국으로 떠올랐지만 삼국간섭으로 인해 일본의 새로운 지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 천하질서를 잃은 중국은 100여 년 동안 느꼈던 수치심을 극복하고, 21세기에 들어서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하여 그에 따라 동아시아 질서를 재구성해 자존심과 지역패권의 지위를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꿈’을 이루었다면 오늘날 중국은 무언가를 통해 중국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중국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 사용 또는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이 국가 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나 ‘변방외교’ 같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통해 청일전쟁 이전의 중국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앞으로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로 회귀할 것인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일본과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선택과 전략이 미래 세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문헌

두산백과. “웨이하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644&cid=40942&categoryId=40003> (검색일: 2015. 1. 3).

무쓰 무네미쓰. 1993. 《건건록》. 김승일 역. 서울: 범우사.

Chor, Louis. 2010. “The Sino-Japanese Peace Treaty Memorial Hall, Shimonoseki City.” Accessed July 20, 2014. <http://www.louis-chor.ca/memorial.html>.

Li, Hongzhang., and Hirobumi Ito. 1895. *Verbal Discussions During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Chinese Plenipotentiary, Viceroy Li Hung-Chang, and the Japanese Plenipotentiaries, Count Ito and Viscount Mutsu, at Shimonoseki, Japan, March-April, 1895*. Tientsin: Tientsin Press. (Reprinted by "The Peking and Tientsin Times"). Accessed February 22, 2015.
https://archive.org/stream/verbaldiscussio00itgoog/verbaldiscussio00itgoog_djvu.txt.

Paine, S.C.M. 2005.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春帆楼. 2014. Accessed July 20. www.shunpanro.com.

戚其章. 1990. 《甲午战争史》. 北京: 人民出版社.

宗泽亚. 2012. 《清日战争》. 北京: 后浪.

1930 년대 동아신질서와 일본의 기회 _규슈 국립박물관

강현민

고려대학교

‘일본에서 아시아로’ 규슈 국립박물관

규슈 국립박물관. 오랜 옛날부터 도자기와 난학, 서양 문물 등을 유입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아시아 질서의 거대한 변혁을 주도했던 규슈 지역을 대표하는 이 박물관은 겉으로만 보면 전세계 여느 박물관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현대적인 건축양식과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유물과 사료가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뽐내고 있고,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뮤지엄 샵과 오픈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방문객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 올릴만한 사진 한 장을 건지러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정도로 진부하고 평범한 박물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 혹은 저처럼 딱히 생각이 있는 건 아닐지라도 깨알 같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진부함과 평범함 속에서 무언가 특별하고 독특한 것을 찾아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규슈 국립박물관의 독특함과 차별성, 바로 그것은 규슈 국립박물관이 내세우고 있는 전시 컨셉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특히 규슈 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관 전시 컨셉트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이 상설 전시관은 박물관 4층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교류 전시실’로, 본 박물관이 자신의 ‘얼굴’로 내세우고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 측에서는 문화교류 전시실의 전시 컨셉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문화교류전시실)은 상시 800건 정도의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본 박물관의 얼굴이다. 그러나 왜 ‘상설 전시’가 아닌 ‘문화교류 전시’라고 명칭을 붙였을까? 이는 규슈 국립박물관에게 주어진 과업으로서 일본의 문화 교류 역사를 전시하기 위한 하나의 답변이다. 일본 통사가 아닌, 규슈의 지역사도 아닌, 아시아와의 문화 교류사. 우리들은 이 전시실에서 일본 문화가 외래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소화하고 축적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해온 경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본 소개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첫 인상은 일본 혹은 최소한 본 박물관의 경우 일본 문화가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일종의 피해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박물관들도 자국 문화의 독자성을 뽐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규슈 국립박물관은 일본 문화가 외래 문화를 모방했다는 일종의 비평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소화와 축적의 독자적 문화’로서 일본 문화를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자국의 독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화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자리잡고 있던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오랑캐도 아니고 완전한 사대주의 국가도 아니었던 일본은 자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주요 전시물 중 하나인 ‘덕천가부조선국왕완국서사’ 등을 보면 조선통신사에 대한 대우를 간략화 하는 등 일본이 조선과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한 적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수나라 황제가 ‘왜황’이라고 지칭한 부분을 일본의 쇼토쿠 태자가 “동쪽의 천황은 삼가 서쪽의 황제에게 고한다.”고 그 명칭을 고쳐 답변하는 등 독자적인 ‘황제’를 가진 일본으로서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를 수립해보려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화질서 속에서 일본이 점하고 있던 그 애매한 위치 덕분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다 큰 범위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네덜란드와 같은 서양 국가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일본의 정체성을 더욱 흐리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을 수도 있겠지요.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에 서양 문화까지 섞어버리니 말입니다.

그러했던 일본이 20세기에 들어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일찍 개항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덕분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급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중화질서를 깨고 아시아에 일본의 정체성이 깎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여 그 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 절호의 기회는 결국 슬픈 끝을 맞게 됩니다. 일본이 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아 결국에는 아시아와 서양 국가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되니까요.

20세기 일본, 정체성 확립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다

일본에 그 절호의 기회란 바로 ‘동아신질서론’(東亞新秩序論)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동아신질서는 간단히 말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유일한 민족주의인 일본의 민족주의가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담론이 세계 2차대전 발발 직전인 1930년대에 일본에서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아 신질서론은 세계 2차대전 발발까지 일본 군부가 조선, 대만, 중국 등을 대상으로 감행했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일본인들이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평화를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 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동아 신질서란 일본이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아시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중화질서를 통째로 깨뜨리고 그 자리에 자국 중심의 질서를 세움으로써 그 자리를 끝내 확립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정부마저 통제하지 못하고 있던 일본 군부의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침략 행위마저 앞다투어 합리화하려고 들었을까요. 당대의 철학자였던 미키 기요시는 1937년 11월호 《중앙공론》에 게재한 논문인 ‘일본의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동아 신질서를 정의합니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의 끝에서 문화를 전수받기만 했던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본 문화의 진출에 따라 새로운 동양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통일은 이미 다가오는 세계사적 단계이며, 문화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이 그 사명을 갖고 사력을 투입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미키는 새로운 동양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선 우선 일본 문화의 진출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본 문화란 무엇이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이었을 것입니다. 규슈 국립박물관 직원부터 시작해 규슈 전 지역, 나아가 일본 전역에 걸쳐서 보면 일본 국민만큼 친절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설사 가식이라 해도, 저는 이번 답사를 통해 미키도 다른 아시아인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일본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운 주변만 보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일본군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사랑방’ 강의를 통해 열심히 읽었던 “개인은 도덕적이되 사회는 비도덕적이다.”고 주장한 미국의 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옆집 정원을 가꾸는 할아버지나, 앞길 꽃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각자 무척 착하고 친절할지라도, 이들마저 ‘반유대주의’, ‘중국해방’, ‘인종적 우월주의’ 등의 슬로건을 내건 군중 속에 섞이면 하나같이 다 비도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내용입니다. 니버가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써서 미키가 이를 읽어볼 수 있었다면 그의 사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주변에 살고 있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만 쪽 둘러보고 나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미키가 만주 일본군의 만행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일본인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잘못 개진한 탓에, 그의 사상은 일본군의 잔혹한 행위마저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하는 일본의 그 염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이것이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속, 직업, 계급 등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요.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와야 서로를 인정하고 말이 통하며 금방 친해지는 문화가 있듯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소속감이 있어야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생각해보면 일본엔 그러한 확실한 소속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당시 이러한 소속, 계급 등을 부여하는 주체는 동아시아의 경우 ‘중화질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그 중화질서가 강요하던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꾸준히 아시아 대륙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를 갖고 싶어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은 옛날부터 중화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중화질서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경심이란 중화질서 그 자체에 대한 동경심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며 공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동경심이었겠죠. 굳이 중화질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도 어떠한 질서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 때마침 일본에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인 중화질서를 와해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질서를 직접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앞서 미키 기요시를 잠깐 언급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문화’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이 일본이 구축하고 싶어하던 동아 신질서가 기존의 중화질서와 차별화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철학자인 로야마 마사미치는 1938년 11월 <개조>에 게재한 ‘동아협동체의 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통일은 민족주의의 극복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극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 주 동력은 일본의 민족주의가 아시아 대륙에 진출해나간 과정에 내재하고 있습니다(巖山政道 1938, 11).

여기서 로야마가 말하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바로 미키가 말하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문화와 일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키는 상기 논문에서 일본의 민족주의가 일본의 천황제적 민족 관념, 즉 ‘일군만민의 세계에 유례없는 국체에 기초한 협동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 포용성, 진취성, 지적 성질, 그리고 생활적이며 실천적 성격을 아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동양 사상을 시정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그 독특한 연대 사상이며 협동 사상’이 있기 때문이며, ‘일본 국체의 근원을 이루는 일국만민, 만민보익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함동주 2000, 30). 미키는 이와 같은 ‘일본적’ 민족 관념이 단지 일본만의 특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중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로야마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로아마도 결국에는 미키가 갖고 있던 단점도 그대로 답습하여 그의 주장은 일본 군부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데 악용되고 맙니다. 아무리 애초의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취지마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소속감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본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의 이야기이지요. 서양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화질서에서 제 자리를 찾아보려 하다가 실패하고, 서양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는 유럽 질서에서 제 자리를 찾아보려 하다가 그것마저 실패하여 오늘날까지 국제 사회에서 애매한 위치에 선 채 두리번거리고 있는 일본의 모습. 최근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 보유 및 전쟁수행 능력을 금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무기를 수출하고 자위대를 파병하려고 하는 등 나름 개진하고 있는 강경한 외교정책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계 질서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발악일지도 모릅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도모하고자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에 책임을 점진적으로 전가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군사력을 다지고,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오(neo) 동아시아질서’를 세우는 것이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지만, 일본이 1930년대에 조우했던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슬람주의자들이 한때 찬란했던 범이슬람국가(Pan-Islamic State)를 그리워하고 이를 다시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일본도 그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큰 만큼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클 테니까요.

맺으면서

규슈 국립박물관을 돌면서 저는 어떻게 규슈 국립박물관의 전시 컨셉트만 읽고 이 정도의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만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의식이라 함은 오늘날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등 각국이 어떠한 자리에 서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동아시아 질서는 아직도 형성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화질서가 서양의 침략에 의해 무너지고 난 이후,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다 할 만한 질서를 구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한 축,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다른 축을 점하고 있는 양축 구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양축 구도로 인해 오히려 동아시아 질서 수립이 더욱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옆친 데 뿔친 격으로, 이러한 분단된 상황에서 일본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에 집착한 나머지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려 하니, 동아시아 질서의 수립은 더욱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본은 자국의 위치를 재평가 해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쥐고 있던 일본이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오늘날의 일본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적 패권국이 아닌, 신시대 중견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시대 패권국으로서의 일본을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한 역사왜곡 및 군사력 확장 등의 노력을 자제하고, 신시대 중견국임을 깨닫고 오늘날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패권시대에 돌입하는 최초의 관문이었던 규슈. 그 곳에서 메이지 유신이 처음으로 발돋움하였고,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을 패권 국가로 거듭나게 한 일등 공신이 자라났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이라 할지라도, 1930년대에 동아신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규슈야말로 단연코 중심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바로 규슈 국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정치학도들은 그만큼 신중함을 기하여 방문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

참고문헌

- 함동주. 2000. “미키 키요시의 동아협동체론과 민족문제.” <인문과학>
30.
- 蠟山政道. 1938. “東亞協同体の理論.” <改造> 11.

동아시아 사랑방을 찾아 _21세기 통신사와 아베 일본의 만남

최인호

서울대학교

답사는 몸으로 하는 공부

저희는 답사의 마지막 여로에서 한 학기 동안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 저러한 소감이 오가는 끝에 우리의 토의는 답사를 온 까닭으로 모아졌습니다. ‘왜 강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가사키 땅을 밟아야만 했을까?’ ‘우리의 보고 들음은 읽음과 무엇이 달랐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넘어선 공부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공부를 실험해 보고자 나가사키를 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니 답사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몸으로 하는 공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답사를 위해 읽었던 글들, 답사에서 만났던 일본의 풍경과 일본인들은 동아시아라는 꿈의 다양한 버전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함께 간 동기들

과 선생님은 나의 국제정치 공부가 동기, 선후배들의 삶 속에 엮여 있음을 가르쳐주었고, 여행지에서의 나는 강의실에서의 나에게 공부와 실천이 별개가 아님을 말해 주었습니다.

타락한 이상향: 일본의 동아시아

이번 답사 기간 동안 제가 맡았던 주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동아시아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라지만 결국 아베 총리가 꿈꾸는 동아시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짚어보자는 것이고, 현지에서 그 구상을 직접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라는 구호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오지만 사실 동아시아는 20 세기 초 일본이 자국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위선적인 꿈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Saaler and Szpilman ed. 2011, 161-220). 특히 일본은 1930 년대 동아시아 신질서라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냈고, 이들이 내놓은 동아시아 연방이라는 비전은 상당한 매력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좌파 지식인까지 현혹시켜버리기도 하였습니다(하영선 2012). 그 덕분에 서구를 넘어서는 비전이라는 동아시아라는 담론이 가지는 다양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동아시아론은 늘 아시아 국가들에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종의 타락한 이상향이 불러일으키는 이중적인 감정이라고 할까요?

21 세기 동아시아 신질서론의 후계자는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구상은 새롭게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하 NSS)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문서 3 장을 보면 가장 주목할 지구적인 안보상황의 변화로 세력전이와 급격한 기술 혁신을 들고 있습니다. 세력전으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 국가들의 부상을 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여전히 미국이 소프트 파워, 경제력, 군사력을 합친 가장 큰 강대국임을 지적하며 당분간은 미국 중심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정치의 권력이 국가 사이에서만 아니라 기술 변화와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에서 비국가 행위자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주요 행위자로 꼽고 있습니다(National Security Council 2013, 6-10).

위와 같은 세계 정세 분석에 이어서 동아시아 정세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회색지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NSS 가 만들어졌던 좌담회 때에도 매우 주목되었던 개념입니다(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2013). NSS 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 및 북한의 핵개발로 점차 갈등의 소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National Security Council 2013, 11-12).

이러한 신정세에 대응하는 아베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적극적 평화주의와 국제협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NSS는 일본 국가 안보정책의 근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밟아온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행로를 계속 밟아갈 것이며, 세계 정치와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추구에 공헌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공헌자’로서 그 자신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한다. 이것이 일본이 고수하려는 국가안보의 근본원칙이다(National Security Council 2013, 4).

이는 짧은 문단이지만 여러 가지 일본의 고민이 녹아 있는 원칙입니다. 이 문단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새로운 전략적 환경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동아시아의 정세,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회색지대의 증가, 지구적 비전통 안보 이슈의 발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평화국가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적극’이라는 수사가 앞에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기존의 방어만 하겠다는 전수방위의 소극적인 평화 개념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수 방위체제에서 일본은 타국을 침략하지 않으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창설하지 않고 오로지 방어를 위한 자위대만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박철희 2004, 175-177).

하지만 앞서 정세분석에서 보듯이, 이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상은 국가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핵확산, 테러리즘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 요소들, 그리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아니라 영토분쟁을 둘러싼 회색지대의 갈등입니다. 따라서 이제 평화는 타국을 침략하지 않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적인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확장된 평화활동을 해야만 지킬 수 있게 됩니다(National Security Council 2013, 28-31). 말은 같은 평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국제협조’입니다. 아베의 또 다른 최대 현안은 일본 경제의 부흥입니다. 경제 부흥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이에 대한 아베의 우려는 절실한 면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아베가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한 발언을 보면, 아베는 솔직하게 현재 일본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행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Abe 2013).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은 세계 경제·안보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를 부흥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협조라는 말은 안보 영역 이외에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를 비롯해 미국 등 역외 국가는 물론 각종 기구들과 협력을 통해서 일본과 지역의 번영을 함께 달성하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National Security Council 2013, 23-27).

공세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세분석은 시의 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줄어든 국방 재정으로 세계 질서를 관리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협조주의도 미국과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 차원에서 맞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는 지역이나 지구적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일본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위협적 존재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로 재균형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다시 뻗어나가 일본의 경제와 군사정치적인 지위의 부흥을 꾀하겠다는 이러한 아베식 동아시아 전략은 적어도 위와 같은 정세분석의 맥락에서는 논리적인 일입니다.

21 세기 일본 신질서 건축의 후계자로서 아베의 구상은 과연 1930 년대 동아시아 신질서론과 같은 매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우선 미국의 반응을 보면 두 나라는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긴밀한 공동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2013 년 10 월 합의된 미일 2+2 회담 공동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확대된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리하였습니다. 양쪽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일동맹이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지역 및 세계 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에 합의하는 동시에, 일본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본이 적극적으로(proactive) 지역과 지구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여 미국 주도의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1).

하지만 저는 답사 첫 날 사세보 미국 해군기지(United States Fleet Activities Sasebo)에서 미일 양국의 입장에 미묘한 틈이 벌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답사 프로그램 중에 기지 사령관이 미국의 아태전략에서 사세보가 갖는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를 지도하시는 하영선 선생님께서 일본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질문하셨는데 곤혹스러워하는 기지 사령관의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즉 현재 아베의 적극적 평화와 국제협조 전략은 겉으로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 담론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중국을 자기 질서의 동반자로 삼으려는 미국과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이 이러하다면 중국,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아베의 동아시아 구상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삼국 중 중국은 일본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그리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왕관쑹(王冠中) 중장의 발언을 빌리면, 중국은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해왔고 또 앞으로 그러고자 하지만, ‘평화에 대한 적극적 공헌’이라는 공허한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도발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일본의 적극적 평화론과 이와 관련된 영토분쟁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Wang 2014).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 4 월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이기 전까지 아무리 안보 및 경제적으로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어도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뉴스 1> 2014/04/25). 즉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 및 국제협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반대할 바는 아니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영토분쟁과 역사문제가 똑같이 걸려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확장적인 일본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와 이에 입각한 일본 자위대의 활동 강화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는 한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박영준 2014,114-117).

우방에게는 반쪽의 인정만을 그리고 핵심 이웃인 한국과 중국에게는 별다른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식민지 국가들의 지식인마저 속여 넘겼던 1930 년대 동아 신질서론과 비교해서는 한참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이상향도 되지 못한 그들만의 이상향을 외롭게 노래하는 처지인 것이죠.

나가사키의 동아시아와 21세기 통신사

이처럼 초라한 아베의 동아시아 구상에도 불구하고, 21 세기 통신사들이 확인한 나가사키와 그 속의 동아시아는 여전히 과거의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친숙한 먹는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조그만 소도시 나가사키지만 이 곳의 디저트 가게들은 서울의 다양하고 감미로운 맛에 길들여진 21 세기 여성 통신사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가사키의 달콤한 빵들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데지마 보고서에도 언급되었지만 17 세기 설탕과 서양 제빵 기술의 수입에서부터 지금도 유명한 나가사키 카스텔라가 만들어진 것이 그 시초이니 적어도 400 년 가까이 된 셈입니다.



▲ 나가사키 디저트 가게 앞의 통신사들

나가사키와 큐슈 곳곳에 깃든 동아시아와 세계의 흔적에서 나가사키가 오랜 세월 외부와의 교류에 공을 들였고 그로 인해 큰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날 방문한 아리타(有田)

에 서는 한국에서 건너간 도조 이삼평을 모시고 몇 백 년을 도자기 산업으로 한 마을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일교류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한일교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삼평 비를 참관하고 내려오는 통신사들

데지마에서는 조그마한 섬이지만 조선보다 훨씬 앞서 서양과 교류에 나섰기 때문에 보다 쉽게 19 세기 거대한 변환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글로버 가든에서는 19 세기 문명 개화의 중심에 섰던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일본의 화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버 가든 앞에 유명한 카스텔라 ‘문명당’의 이름이 이 과거의 영광을 예증하고 있었습니다. 아베의 동아시아 전략이 길으론 개방적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폐쇄적이었던 반면, 21 세기 통신사들이 목격한 나가사키의 크고 작은 영광은 일본이 제 나름대로 동아시아 및 세계를 품어냄으로써 달성한 성취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나가사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사키 속의 동아시아를 거닌 통신사들의 모습도 아베를 향한 한국 언론이나 정부의 경직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팀에는 이미 일본어에 능통한 두 명의 대학원생과 영국출신 석사 등이 있어 나가사키 못지 않게 일본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답사기간 곳곳에서 일본의 여러 매력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일본 특유의 서비스를 보여준 버스 기사와 모습에서부터, 호텔 욕실에서 발견한 얼굴 크기만큼만 김서림 방지 처리가 되었던 거울 등 일본 특유의 섬세함에 한국에서 온 통신사들은 쉽게 감동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베의 정책을 비판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나가사키의 통신사들은 일본이 선사하는 다양한 매력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통신사를 맞아준 나가사키도 나가사키를 찾아간 통신사도 그 삶의 모습은 답답한 아베의 동아시아나 웅색한 한국의 반응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와 나가사키 주민들의 삶은 이미 서로를 품고 안긴 국가, 동아시아, 세계의 시공을 향해 열린 채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의 화려한 부상과 21세기 통신사의 현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여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19 세기 문명 개화기를 선도한 인물들이 나가사키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보면서 그처럼 21 세기의 동아시아를 선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부끄럽고도 부러운 마음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가든에서 글로벌의 스케일 있는 삶과 나가사키의 아름다운 해변을 내려다보고 있는 공원과 저택에 압도되는 순간, ‘글로벌의 20 대는 저렇게 화려했는데 나의 20 대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미건조할까’, ‘뒤늦게나마 청춘의 화려함을 되찾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해안 도시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한 끝에 일본 개화의 영웅이 된 글로벌에 필적하는 재미있는 삶을 살아볼 가능성이 나에겐 과연 있을까? 국제정치의 빈틈, 문명과 야만의 빈틈을 파고들었다가 글로벌은 대박을 터뜨렸는데, 통신사들이 화려한 꿈을 꾸고 실행에 옮길 기회는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답사기간 동안 제 머리를 맴돌았던 것은 동아시아라는 꿈의 무대였습니다. 20 세기 초에 일본이 시작했고, 아베가 초라한 형태로 되살리려 하는 동아시아를 사랑방의 통신사들이 새롭게 꾸며본다면 나도 21 세기의 글로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면 중요한 일이 공부와 실천의 결합이었습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하는 공부가 21 세기 글로버의 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아야만 공부가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공부의 오랜 버릇으로 공부는 그저 논문 쓰고 전문가가 되는 일인 줄 알았지만 답사를 통해서 역사가 기억할 공부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공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베의 초라한 이상향도 1930 년대 일본의 타락한 이상향도 아닌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를 품을 동아시아라는 21 세기의 이상향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일이 21 세기 글로버의 첫 항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동아시아의 전통,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 현재 동아시아 변화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잘 묶고 조합해서 보편적인 매력을 갖는 동아시아 문명의 규범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일단 쉼어보자는 식의 순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문화의 것이든 장점과 단점을 고르고 깎아서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만들어 보자는 시도입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 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일례로는 유교적 전통의 요소들과 민주주의 개혁을 조합해보려는 움직임 이 있습니다(Kim 2014).

동아시아 사랑방을 찾아서

마지막 여로에서 저희가 소감을 다 발표한 이후 저희를 한 학기 동안 지도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19 세기 일본 지식인들이 국가와 자신들의 미래를 논하며 무수히 밤을 지새 사례를 말해주시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이며,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공부하고 사랑으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나서 언제 어디서고 밤을 지새우며 공부와 삶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사랑방이고, 그러한 곳이라면 모두가 사랑방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랑방을 만들어갈 주체는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로 매듭 지으셨습니다.

사랑방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이번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수업을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모인 19 세기 유길준 등의 젊은이들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흥미를 자극했던 것은 그들의 집이 서울 중심부에 모여 있었고 이미 서로 친숙한 사대부들의 선후배 세대가 모여 19 세기 조선의 앞날을 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의 어른이 푹푹한 아이를 데려다가 19 세기 문명 개화의 새 물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돌다리 위에서 어린 아이가 어르신께 인사하는 친숙한 장면과 19 세기 조선의 개화라는 정치적 과제의 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느꼈던 기묘한 감동이 답사를 마치는 자리에서 다시 되살아 났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가장 비일상적인 동아시아라는 이상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2014 년 여름 나가사키에서는 2 박 3 일간의 사랑방이 열렸지만 우리는 아직 동아시아의 사랑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있었지만 일본, 중국,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사랑방은 언제 가능할까요? 나가사키에서 우리는 잠시 사랑방의 자유를 누렸지만, 돌아가서는 다시 일반 학생으로, 동아시아의 이상향보다는 당장의 학점과 페이퍼와 진로와 유학을 고민할 겁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밤을 지새워 꿈을 논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상설 사랑방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하였으니 그러한 사랑방을 찾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흩어진 채로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어쩌면 동아시아 사랑방은 찾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참고문헌

- 뉴스 1. 2014. “[전문]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2.” 4 월
25 일. <http://news1.kr/articles/?1650297> (검색일: 2014. 5. 27).
- 박영준. 2014.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국방정책연구> 30, 1:87-121.
- 박철희. 2004.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미일동맹 및 위협인식의
변화와 일본방위정책의 정치.” <國際政治論叢> 44, 1:169-190.
- 하영선. 2012.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천하에서 복합까지, 제
4 회.” <EAI 사회과학대강좌> 발표, 서울, 10 월
11 일.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n&code=kor_event&idx=11321&page=1)
[n&code=kor_event&idx=11321&page=1](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n&code=kor_event&idx=11321&page=1) (검색일: 2015. 1. 10).
- Abe, Shinzo. 2013. “Remark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the
occasion of accepting Hudson Institute's 2013 Herman Kahn
Award.” Accessed June 1,
2014. [http://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309/25hu](http://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309/25hudson_e.html)
[dson_e.html](http://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309/25hudson_e.html).
- Kim, Sungmoon. 2014. *Confucian Democracy in East Asia: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al Security Council. 2013. “National Security Strategy.” Accessed June 10,
2014. <http://www.cas.go.jp/jp/siryou/131217anzenhoshou/nss-e.pdf>.
- Saaler, Sven and Christopher W.A. Szpilman ed. 2011. *Pan-Asianism: A Documentary History Volume 2, 1920-Present*. Lanham: Rowman & Littlefield.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Toward a More Robust Alliance and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 Accessed May 29,
2014. <http://www.defense.gov/pubs/U.S.-Japan-Joint-Statement-of-the-Security-Consultative-Committee.pdf>.
- Wang, Guanzhong. 2014. “Major Power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Accessed June 15,
2014. <http://www.iiss.org/en/events/shangri%20a%20dialogue/archive/2014-c20c/plenary-4a239/wang-guanzhong-2e5e>.
-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 2013. “我が国を取り巻く軍事・安全保障環境.” Accessed June 15,
2014.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dail/siryou5.pdf.

9. 동아시아 사랑방을 찾아: 21 세기 통신사와 아베의 만남

부록

- EAI 사랑방 2014년 1학기 프로그램
- EAI 후원회원

EAI 사랑방 2014년 1학기 프로그램

“현대세계정치 바로 읽기”

- 1주 근대유럽과 국제정치사상
- 2주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치학의 탄생
- 3주 냉전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 4주 연구계획서 발표
- 5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1: 역사 vs 과학
- 6주 데탕트와 패러다임 논쟁
- 7주 신냉전/탈냉전과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 8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2: 실증주의 vs 탈실증주의
- 9주 복합화와 구성주의
- 10주 복합화와 세계역사사회학
- 11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 12주 한국의 국제정치학
- 13주 세미나 마무리
- 14주 현장답사



사랑방의 **젊은그들** 규슈를 품다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명훈	김수진	김형찬	배위섭
강은경	김승빈	김희정	백송현
강은모	김시연	김희진	백혜영
강찬수	김연옥	남윤희	서은숙
강현옥	김영구	노봉일	서정원
고병희	김영섭	노호식	서희정
고승연	김영원	노환길	선승훈
고혜선	김용규	류재희	성정은
공성원	김용남	명정모	손대현
공정문	김 원	문지옥	손재키
공창위	김유상	민선식	송기춘
구상환	김유주	민선영	송우엽
구윤정	김은선	박근아	송지연
구준서	김은숙	박대균	신동원
권세린	김은영	박미영	신명철
김가현	김재두	박사라수현	신보희
김건민	김 정	박상민	신상화
김경순	김정섭	박상용	신성수
김경지	김정은	박석원	신성호
김광덕	김정은	박선정	신영준
김국형	김정하	박성만	신영환
김기정	김 준	박수진	신준희
김기준	김지윤	박연호	안용찬
김남희	김지태	박영택	안정구
김대영	김 진	박용준	안중익
김동건	김진영	박장호	안현정
김동호	김진혁	박재시	안현호
김만호	김창수	박정섭	양호실
김민규	김태균	박진원	엄찬섭
김병국	김한기	박찬근	여동찬
김병표	김현성	박찬희	여현정
김병희	김현전	박창완	우미경
김봉하	김형운	박형민	원종숙
김상래	김형준	배기옥	원종애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유승훈	이여희	장진호	채규민
유재승	이영석	장희진	채규호
유정석	이영주	전경수	최 건
유지영	이원종	전명선	최규남
유창수	이인옥	전혜진	최동규
육은경	이재섭	정기용	최병규
윤병석	이정은	정랑호	최복대
윤영두	이정호	정병갑	최종호
윤용집	이정희	정석희	최준원
윤우성	이종진	정영진	최철원
윤재훈	이종호	정용화	하형일
윤정립	이주연	정원칠	한금현
윤정선	이주연	정윤식	한상철
윤창민	이중구	정윤희	한숙현
윤혜성	이지원	정재관	한승혜
이근우	이지희	정주연	한일봉
이기호	이창원	정진영	한정원
이내영	이 항	정해일	한지현
이동훈	이해완	정현운	허세홍
이미혜	이현옥	정현주	홍성우
이민교	이현희	정현철	홍성원
이범주	이호준	조규남	홍호영
이봉재	이흥구	조규완	황 수
이상원	이흥재	조동현	황정원
이상훈	이희정	조은희	황준호
이서현	임지순	조현선	W1°
이선주	임현모	주영아	
이선희	임현진	주진균	
이성량	임흥재	주 한	
이소민	장동우	지혜리	
이숙종	장세린	진선희	
이승훈	장세형	진재욱	
이시연	장재훈	차국린	
이신화	장준혁	차동민	

EAI 외교안보

1.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2.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3.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4.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5.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6.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7. 중국의 미래를 말한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8.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9.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0.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11. 미중관계 2025
12.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上
13. 하영선 국제정치칼럼 1991-2011 · 下
14.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5.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16.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복합과 공진
17.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
18.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EAI 거버넌스연구

1.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2.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3.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4. 경계를 살리는 민주주의
5.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6. 대통령직 인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7.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8.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9.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
10.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11.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EAI 여론분석연구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8.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EAI 사랑방 여행 답사기

1.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7. *Future of North Korea 2032: Coevolutionary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